



걱정은 덜고 활력은 더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폐막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 재취업특화교육 현장

그대들이 주인공





맑은 눈으로 광속 신청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4년 1학기 2차 신청
**'24. 2. 1. (목) 9시
~ 3. 14. (목) 18시**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24. 2. 1. (목) 9시 ~ 3. 14. (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4. 2. 1. (목) 9시 ~ 3. 21. (목) 18시

신청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신청방법

-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

*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KB인증서, 토스, 통신사PASS, 페이코, 하나인증서

-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4년, 학자금 지원 제도가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 내용		기존 ('23년)	개선사항 ('24년)
장학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 (1유형 4~6구간) 380만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전액 • (1유형 4~6구간) 420만원
	근로장학금	지원구간 및 인원 확대 • (구간) 8구간 이하, (인원) 12명 지원	• (1유형·다자녀 1~3구간) 570만원 • (다자녀 4~6구간) 480만원
대출	일반, 취업 후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 • 350만원	• (구간) 9구간 이하, (인원) 14명 지원 • 400만원
	취업 후	이자면제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 • (1~5구간) 이자면제 없음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 2학기~ • (1~5구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시작 전까지 이자면제 2학기~
		지원구간 확대 • (실·폐업·육아휴직) 상환유예 가능, 이자면제 없음 • (등록금) 8구간 이하 • (생활비) 8구간 이하	• (실직·폐업·육아휴직) 상환 유예 가능, 유예기간(2년) 이자 면제 2학기~ • (등록금) 9구간 이하 2학기~ • (생활비) 8구간 이하, 9구간 중 긴급생계근로자 추가 2학기~

스무 살 딸의 나 홀로 뉴욕 여행

대학 1학년을 마친 딸이 겨울방학에 별 계획이 없다고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내가 물으니 사실은 미국 뉴욕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럼 가면 되잖아. 아빠가 비행기표는 사줄 수 있어. 같이 갈 친구가 없단다. 혼자 가면 되겠네. 딸이 말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해서 다들 안된대요.

나는 뉴욕에서 1년간 연수를 한 적이 있다. 일부러 슬럼가를 찾아다니지 않는 한 뉴욕은 위험하지 않다. 물론 사기꾼과 소매치기가 있다. 이를테면 타임스스퀘어에서 인형의 탈을 쓴 사람이 같이 사진 찍자고 해놓고 돈을 달라거나, 길에서 일부러 부딪혀 안경을 떨어뜨린 뒤 안경값을 물어내라는 인간들이 있다. 지하철에서 남의 손에 있던 게임기를 빼앗아 달아나는 도둑을 본 적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게 무서워서 못 간다면 뉴욕엔 영원히 못 간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질주하고 대낮에 '묻지마 칼부림'이 나는 서울도 위험하긴 매한가지다. 게다가 뉴욕 길거리엔 무장 경찰이 엄청나게 많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곳이 뉴욕이다.

구글 맵을 놓고 지도 보는 법부터 가르쳤다. 뉴욕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볼 만한 것과 갈 만한 곳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줬다. 아침엔 크림 치즈를 듬뿍 발라주는 베이글을 먹고 저녁엔 차이나타운에서 맛있는 베트남쌀국수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재즈클럽에 가보고 싶다는 딸에게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클럽도 소개했다.

딸은 혼자 갈 자신이 생겼다며 여행 책자를 사고 인터넷 여행 후기를 읽으며 한껏 들떴다. 반대로 나는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해졌다. 정말 혼자 괜찮을까. 뉴욕은 위험하잖아. 이제 갓 스무 살 여자아이가 혼자 트렁크를 끌고 다니면 골목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뉴욕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도시다. 매일 저녁 숙소에 돌아가면 꼭 한국에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딸아이는 뉴욕 공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스스로 예약한 호텔을 찾아가고 일주일짜리 지하철 패스를 끊어 잘도 돌아다녔다. 맨해튼 시내를 하루에 2만 보씩 걸었다며 살이 빠졌다고 좋아했다. 길거리 핫도그 하나에 8달러나 내고 맘먹고 들어간 맛집에서 팁을 19%나 뜯겼다며 혀를 내둘렀다. 아빠가 추천한 재즈클럽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지만 나중엔 좀 졸았다며 웃었다. 뉴욕에선 21세 이상만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분하다며 씩씩했다.

딸은 무사히 돌아왔다. 일주일 뉴욕 여행이 너무나 좋았다고 했다. 자전거 타고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 돈 것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오후 내내 구경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제 어디라도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딸아, 네가 본 건 뉴욕이 아니야. 어른이 돼 가는 네 자신이란단다. 아빠가 널 혼자 보낸 건 그 때문이야. 자랑스럽다, 내 딸아. **K**



한현우

신문기자 이력 30년 중 대부분을 문화부 기자로 글을 써왔다. 일간지 문화2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문화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평화와 풍요 기원 하회별신굿탈놀이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별신굿은 3년, 5년 혹은 10년마다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서낭)님에게 마을의 평화와 농사의 풍년을 비는 굿을 뜻한다. 하회마을에서는 굿과 함께 탈놀이를 해왔다. 여러 사회계층 간의 관계를 해학을 빌려 풍자하는 내용이다.

현존하는 9개 하회탈은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움직이는 턱'을 갖고 있는 탈은 양반탈, 선비탈, 중탈, 백정탈 등 넷뿐이다. 고려시대 '화척'이라 불리던 유목민의 후예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白丁)' 계층이 됐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로 키가 180cm가 넘고 그중 한 명은 붉은 머리, 덩수룩한 붉은 수염, 파란 눈에 붉은 피부색을 갖고 있었다.' 고종황제의 고문이었던 미국인 외교관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1874~1946)가 남긴 기록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백정탈이 공연하고 있다. **K**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2.05-18

No.741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2월 5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한현우 '스무 살 딸의 나 홀로 뉴욕 여행'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평화와 풍요 기원 '하회별신굿탈놀이'

06

커버스토리

그대들이 주인공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실현합니다
 아버지의 바다로 돌아온 청년어부 김대성
 정책에 청년 담는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임소형
 두 바퀴로 춤추는 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 채수민
 파리올림픽 도전하는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06

정책 돋보기

16

지금 용산은

"엄중한 안보상황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로
국민 안전 지켜야"

18

알쓸정책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의

22

정책 돋보기

'쉬었음' 청년 40만 명 노동시장으로!

24

돈 되는 정책

청년 적금 갈타기



25

이 주의 키워드
누리소통망(SNS) 과식

26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32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은 '스마트'하다

36

강원2024
**우리 다시 빛나자!
 승리보다 빛난
 14일간의 도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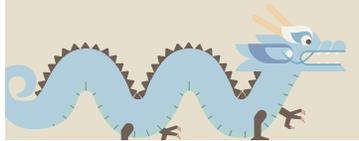
48
 K-피플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

42

설 특집 I
따뜻하게 풍성하게

54

설 특집 II
안전하게 활기있게



52

어피티가 본 MZ 생각
**MZ는 세뱃돈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어른이'?**

60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길조? 유해 동물? 까치의 본색

62

정책현장
**폐업 소상공인 재기할 때까지!
 '희망리턴패키지'가 도와줍니다**

65

문화
**맛있는 추억이 전시된 곳
 과자박물관을 아시나요?**



65

70



68

옛 그림이 전하는 지혜
용이 처음부터 용은 아니었다

70

작은 영웅들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문희영

74

여행이 있는 주말 '로컬100' 따라가기
화랑대철도공원(노원불빛정원)

78

청룡이의 정책톤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79

닥터 서의 진료실
만성피로증후군

80

독자 공감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자유와 공정이 우리 사회를 더 활력 있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곳에서 청년의 미래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실현합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이 착실하게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또 정부는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채용시장에서 청년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울 수 있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정부는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청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해 3개월간 일대일 맞춤형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의 30%를 환급해주는 후지급형 교통카드다. 이를 통해서도 대중교통비 1500원을 기준으로 청년 한 명당 연간 32만 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은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도약 꿈꾸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이처럼 정부의 청년 정책들에는 실제로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담겨 있다.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포진해 있는 청년보좌역이 이 역할을 한다. 청년보좌역과 이들이 이끄는 2030자문단은 지난 1여년간 청년의 요구와 필요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청년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보완하고 담당자들에게 실제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처음에는 9개 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됐어요

청년이 될
원하는지는 청년이
알아요

실현합니다

처에서 시범적으로 청년보좌역을 운영했는데 장관급 전 부처로 확대된 것이다.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도 촘촘히 마련돼 있다. 이를테면 어촌에서 창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1인당 최대 월 11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의 공연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월부터 전국 759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이나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청년들의 활약을 통해서 스포츠·예술·패션·전통문화 등 K-컬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 지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참여의 장을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월 19일 강원 강릉시에서 가진 ‘청년과의 대화’ 자리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김효정 기자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용기 내봐요



손이 뾰뾰 얼어도
‘국대’ 되려면
연습해야죠

청년 정책은 ‘온통청년’과 ‘마이홈’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온통청년’ 누리집(youthcenter.go.kr)에서는 정부의 모든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청년정책 통합검색’을 통해서도 정책 분야에 따른 정책은 물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맞춤형으로 검색 가능하다. 학력이나 연령, 여성·장애인·저소득층 같은 특화분야에 따른 정책도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청년센터를 검색해 활용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상담실도 이용 가능하다. 카오톱을 통해 간단히 상담하는 방법이나 심층상담 예약 방법, 전화·게시판 상담 방법도 상세히 안내돼 있다. 상담실을 통하면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이나 직업훈련,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직무나 적성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알맞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받는다면 실제 구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맞춤형 주거 정책을 찾아 지원받거나 지역별로 진행 중인 정책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금융 지원, 주거비 지원 같은 프로그램도 모두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포털(2030.go.kr), 청년정책 블로그(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DB(2030db.go.kr)를 통해서도 직접 정책 담당자와 연결해 다양한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차곡차곡! 청년 자산형성 돕는 정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이 착실히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2월 시행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인데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저리로 연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당첨된 청년은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대들이 주인공

아버지의 바다로 돌아온
청년어부 김대성

“바다는
거짓말 안 해
노력한 만큼
돌려준다”

“바다는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발로 뚫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다인 것 같아요.”

5년 차 청년 어업인 김대성(35) 씨의 말이다. 그는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한 뒤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중 2020년 바다로 뛰어들어 김 양식을 시작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다시 차로 1시간 넘게 이동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그곳에서도 멀리 떨어진 바다 위가 그의 일터다. 그가 깨끗한 작업복이 없는데 사진 촬영을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진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생업을 이어나가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김 양식은 김의 종자를 배양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시설하우스에 ‘김 씨’를 뿌린 뒤 채묘(성숙한 포자를 김발에 붙이는 작업)를 해 기르고 수온이 올라가기 직전에 수확한다. 양식법으로는 지주식과 부유식이 있는데 그중 지주식으로 김을 키워낸다.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 바닥에 지주(장대)를 세운 다음, 지주에 그물망을 끼워 김이 그물망에 붙도록 하는 방식이다. 1년 중 서너 달을 제외하곤 이 과정을 반복한다. 고된 작업의 연속이다. 특히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해온 그에겐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부터 도전이었다.

“항상 조심하자고 다짐하면서 바다로 나가요. 바람이 불면 굉장히 위험해요. 김이랑 물이 섞이면 무게가 늘어 배가 평소보다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파도까지 치면 겁이 나요.”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유난히 크다. 하루에 두 번 김이 물 바깥에 노출되는 동안 빠르게 작업해야 한다. 체력이 좋은 청년들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마을의 어업인 평균 연령대는 60대다. 그의 또래는 한 명뿐이다.

“김 양식은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나이 든 분들은 더 힘에 부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아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저도 아버지가 이 일을 해보라고 2년 동안 설득한 끝에 시작했어요.”

평균 연령 60대 마을 어촌계에 활력을 불어넣다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지만 반평생 김 양식을 해온 아버지를 보면서 어업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종일 바다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다. 성인이 되면서 익숙해진 육지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김’이 수출 효자 품목이 됐다는 뉴스를 보고 서야 마음이 달라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김은 역대 최고 수출액인 6억 달러를 돌파해 2019년에 이어 수출 품목 1위에 올랐다.



김대성 씨는 지주식으로 김을 양식한다. 지주에 그물망을 끼워 김이 붙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2023년 12월 기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고향에 돌아와 먼저 어촌계에 가입한 뒤 선배 어업인들을 도왔다. 젊은 청년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 일손을 보태고 노하우를 배웠다. 그런 그를 지켜보던 주변에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천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하고 수산업 관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수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3년 동안 매달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부자재를 사야 한다거나 일을 하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뒤늦게 알아서 2년만 지원받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 어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지원책인 것 같아요.”

김 양식은 1년 평균 인건비만 8000만 원, 자재비까지 더하면 최대 1억 6000만 원이 든다. 그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은 해가 더해도 줄지 않는다. 극심한 기후 변화 탓에 이전과 달라진 바다 환경 또한 걱정을 더한다. 4월 말까지 할 수 있었던 작업을 지금은 수

온이 높아져 4월 초면 끝내야 한다. 그럼에도 어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다가 주는 보상감 때문이다. 그는 “늘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열심히 한 만큼 돌려받는 곳이 바다”라고 했다.

매년 수확을 마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일기를 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기후 환경은 어떻게 변했는지, 작업 과정 중 실수는 없었는지 등을 기록한다. 최종 목표는 공장을 세워 자신이 뿌린 종자로 만든 김을 수출하는 것이다.

“제 피부가 많이 상했죠?(웃음) 속상한 마음이 들다가도 작황 결과가 좋으면 다 잊혀져요. 실패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젊고요. 바다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좋은 김을 만들기 위해 제가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을.” **K**

이근하기자

그대들이 주인공

정책에 청년 담는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임소형

“청년 정책
빈틈 찾아
‘쓴소리’로
메워요”

2022년 11월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이 처음 출근했을 때만 하더라도 ‘청년보좌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았다. 임 보좌역과 ‘K-공감’의 만남은 두 번째다. ‘K-공감’ 제686호 커버스토리인 정부 청년보좌역 9명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임 보좌역은 “2030 자문단을 정책랩 방식으로 운영해 ‘정책 소통’을 실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2030 자문단은 정부 각 부처에 설치돼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임 보좌역은 고용부 자문단의 단장을 맡아 1년 동안 이끌어왔다. 1년 전의 계획을 실천했는지 물어봤다.

“2030 자문단 운영방식으로 ‘청년주도형 정책랩’을 도입해 정책과제를 수행했어요. 고용노동부의 업무분야를 크게 보면 고용, 노동, 산업 안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세 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수립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말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데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보좌역은 청년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청년보좌역으로서 여러 실·국 회의 등에 참석해 일종의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해요. 고용부의 정책은 특히 청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인지 여론을 수렴해 전달하고 제안합니다.”

정부와 청년 잇는 연결고리 역할

쓴소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임 보좌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새로운 요구를 담은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청년성장 프로젝트’다.

“그동안 2030 자문단은 간담회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정책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지 않은 청년이 구직단념 상태로 이행하거나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퇴사해 구직단념 청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구직단념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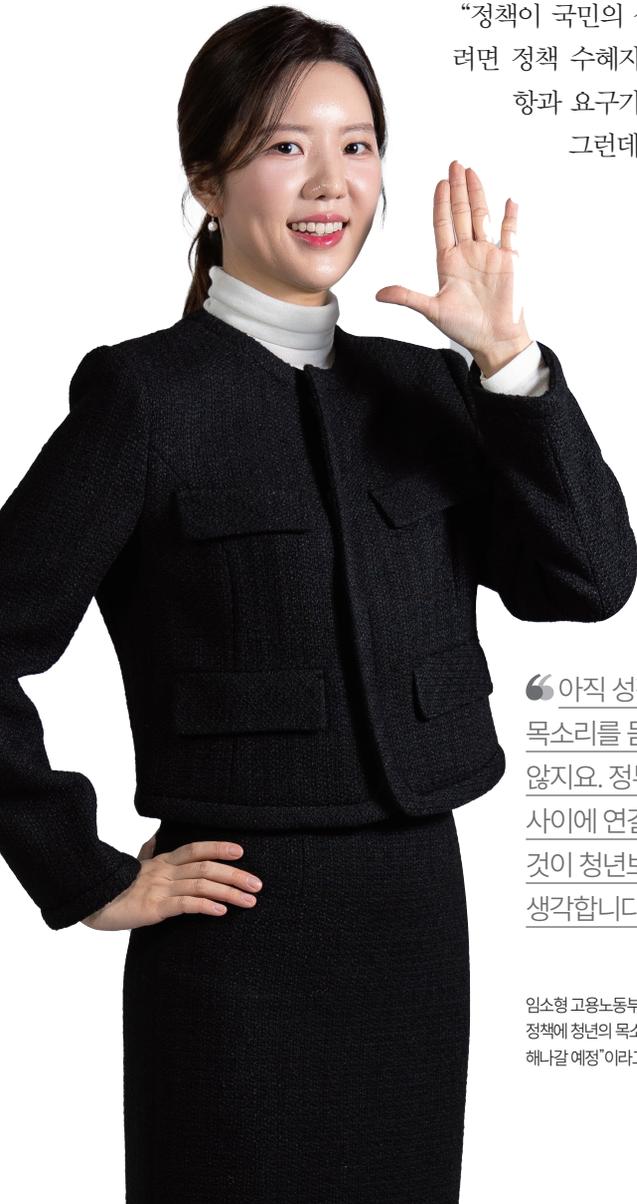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관리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임 보좌역과 자문단이 2024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조직문화를 청년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에 조직문화

분과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다.

“조직문화를 청년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고용, 노동, 산업안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일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의 활동이 정책으로 도출되고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기 시작하자 청년보좌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임 보좌역과 자문단의 활동은 1년 동안 111회에 달한다. 간담회만 44번 열었고 각종 회의에 수십 번 참석하며 현장을 스무 번 넘게 방문했다. 임 보좌역은 맨 처음 청년보좌역 자리에 지원하면서 이런 역할을 희망했다고 한다.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려면 정책 수혜자가 될 국민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잘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장 중인 청년



“아직 성장 중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지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청년보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정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일은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지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청년보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내고 청년보좌역이 기관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최근 들어서 임 보좌역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인사 중 하나가 “고맙다”는 말이다. 이전에는 청년보좌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임 보좌역 이후로는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인사를 듣는 게 민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보좌역 업무를 맡으며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1년간은 청년보좌역 자리가 안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화 끈을 묶고 뛸 차례인 것 같습니다.” **K** 김효정 기자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주요 내용

- 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 대학, 12만 명 학생에게 제공
- 2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 명 지원
- 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4만 8000명으로 확대,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 발굴·확대
- 4 K-Move 스쿨 사업**
해외 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
- 5 K-디지털 트레이닝**
4만 4000명으로 확대,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과정 제공
- 6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할인**
- 7 청년도전지원사업**
9000명으로 확대, 지속적인 취업 지원 제공
- 8 청년성장프로젝트**
일상과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9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지원금 제공
-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 곤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200만 원까지 지원

그대들이 주인공

두 바퀴로 춤추는
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 채수민

휠체어는 다리
춤은 날개
내 도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2017년 11월 스물한 살이던 채수민 선수는 낙상사고를 겪었다. 7층 높이에서 떨어져 흉추 3, 4번이 손상됐다. 살아난 것이 기적에 가까웠으나 가슴 밑으로부터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고 재활병원에서 1년 4개월을 보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없어요. 깨어보니 중환자실이었고 ‘빨리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했어요. 다신 걸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 몇 달이 걸렸죠.”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던 채 선수의 전공은 ‘결스힙합’이었다. 자신의 몸을 풀어주고 즐기다보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솟아났다. 모든 세포와 관절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사고 후 허리 아래의 감각은 어딘가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에게 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댄스스포츠’라는 장르가 있다는 걸 알려줬다. 휠체어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춤이 아니었다면 휠체어를 밀고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더 오래 걸렸을지 몰라요. 춤이 저를 밖으로 나오게 해줬고 춤이 저를 움직이게 해줬어요. 사고 후 휠체어의 바퀴는 제 다리가, 춤은 제 날개가 돼줬죠.”

댄스스포츠는 200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콤비, 두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무대를 선보이는 듀오, 한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단독으로 춤을 추는 싱글 댄스 등 종목도 다양하다. 채 선수는 장애인댄스스포츠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2019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듀오와 싱글 부문에서 2위에 올랐고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21년 프라하 장애인댄스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싱글 부문 3위에 올랐다. 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두 개의 금메달을 땀다.

“흉추가 손상된 터라 몸의 중심을 잡기도 힘들고 허리나 등에 힘을 쓸 수 없어서 오직 손으로 휠체어를 돌려야 했어요. 댄스스포츠 선수 중에서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경기용 휠체어는 일반 휠체어보다 높이가 높고 바퀴가 기울어져 있다. 춤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잡기가 어렵다. 채 선수는 오른손의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연습했다. 춤을 추는 몸도, 춤의 장르도 달라졌지만 춤이 주는 기쁨은 여전했다.

“사실 대회는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게 춤은 여전히 즐거운 장르였어요. 춤을 추다보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즐기는 모습을 좋게 봐주지 않았나 싶어요.”

춤을 출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자립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자동차에 휠체어를 싣고 내리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연습은 그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동력이 됐다. 댄스스포츠를 시작하고 장애인 여행 리포터, 장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 모습을 보고 바퀴를 한 번 더 밀 수 있는 힘 정도만 얻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채수민 선수는 휠체어를 탄 이들을 거리에서 더 많이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영삼미디어

인 패션쇼 모델, 장애인 브랜드 앰배서더 등에도 도전했다.

“다치기 전에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고 후에 더 진취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웃음). 1박 2일 여행 리포터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 정도로 사회 복귀를 했는데 더 못할 이유가 없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다음 도전은 ‘태평무’

재활병원에 있을 동안 동고동락하던 동기들은 전국 곳곳에 있다. 채 선수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들이 가이드를 자처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쇼트폼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 같은 중도 장애인에게 무조건 나오라고 독려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 모습을 보고 바퀴를 한 번 더 밀 수 있는 힘 정도만 얻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걸스힙합을 시작할 때 그는 “멋있다”는 말이 제일 듣기 좋았다. 지금은 다르다. 대회에 나가거나 여행하면서 듣는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다. “수민 선수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말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아직도 저를 보면서 ‘어쩌다 어린 나이에’라며 혀를 차거나 ‘힘들게 뭐 하러 돌아다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다니는 건 힘들지 않아요. 지금의 제 나이도 너무 좋고요. 불쌍하게 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같은 청년들이 더 많이 거리에, 그리고 무대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채 선수는 요즘 ‘태평무’에 도전하고 있다. 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가 우리 전통 춤인 ‘태평무’를 사사하는 건 최초의 일이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인 ‘태평무’. 그는 휠체어 위에서 이 춤을 추면서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두루 평안한 세상이 오길 바라본다. **K**

유슬기 기자

그대들이 주인공

2024 파리올림픽 도전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파리 향해
하루 500발
“나를
다스리는 법
알았어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김제덕 선수는 3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앞두고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파이팅~!”

힘찬 기합 소리가 한파로 뽕뽕 얼어붙은 아침을 깨웠다. 수은주가 영하 13℃를 가리킨 1월의 막바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은 태극전사들의 훈련 열기로 뜨거웠다. 그 가운데서도 양궁 국가대표팀 김제덕 선수의 기세는 단연 눈에 띄었다. 올 7월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생애 두 번째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전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두 개(남자 단체·혼성)를 거머쥐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당시 경기장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파이팅”을 외쳐대 ‘파이팅 궁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패기는 여전했다. 새벽 6시에 시작해 꼬박 12시간을 채우고야 끝나는 선수촌의 고된 일정에도 그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선수촌의 모든 선수가 참여하는 야외 에어로빅과 러닝으로 시작되는 훈련은 근력 운동으로 이어진다. 양궁은 마냥 정적으로 보이지만, 오랜 시간 선 채로 무거운 활을 계속 들어올리기 위해선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강한 체력이 필수다. 매일 300~400번씩 시위를 당기는 일도 일상이다. 당장 3월에 펼쳐지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앞두고선 더욱 피치를 올려야 한다. 이미 1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수촌에 입성했지만 또 한 번의 시험이 남아 있다. 24명 가운데 3명만이 파리에 최종 입성한다.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게 올림픽 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선발전에 임박해서는 하루 500발 정도 쏘요. 활 무게는 3kg, 시위를 당기는 힘을 무게로 환산하면 20kg에 달해요. 아무리 추워도 선발전에 임박해서는 무조건 야외에서 훈련하는데 그땀 손이 얼 것 같아요. ‘국대’ 되려면 얼어 죽어도 해야죠!”

“날 키운 건 고향 사람들”

김 선수는 2004년생으로 올해 만 20세다.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많으려만 그는 양궁이 가장 재밌다고 말한다. 4년 전에도 지금도 대표팀 막내지만 30대인 김우진 선수와 가장 친하고 40대인 오진혁 선수에게는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 선수촌에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하다. 그나마 양궁 외에 즐기는 취미는 축구와 게임이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록과 K-팝. 요즘엔 아이돌그룹 엔믹스(NMIXX)의 ‘쇼나르’를 즐겨 듣는다. 스페인어로 ‘꿈을 꾸다’라는 뜻이 담긴 이 노래는 조바심이 날 때마다 그를 다시 과녁 앞으로 돌려세운다. “저기 보이죠? 여기서부터 과녁까지 딱 70m 거리에요. 사선에 서 쏜 화살이 날아가 10점에 ‘푹’ 꽂힐 때 엄청난 쾌감이 있어요. 그게 제

삶의 최고 즐거움이에요.”

중요한 대회를 앞뒀지만 설에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할 생각이다.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뵙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보살필 참이다. 경북 예천군은 그에겐 고향 이상의 의미다. 부모의 이혼으로 일찌감치 어머니와는 떨어져 지냈고 아버지는 외지에 나가 생계를 책임졌다. 천방지축 꼬마 궁사를 보살핀 건 조부모와 주위 사람들이었다. 10세에 활을 잡은 김 선수의 훈련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그가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물밑에서 도왔다. 공부엔 관심이 없었지만 양궁을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는 이웃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일취월장했다. 김 선수는 “어릴 때 TV방송에 출연한 탓에 타고난 천재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 200명이 출전한 경기에서 180등을 하기도 했다. 나를 성장시킨 건 고향이 베푼 사랑이다. 덕분에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자랐다”며 눈을 반짝였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되갚는 중이다. 2023년엔 예천군민장학회에 기부도 했다.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서 ‘제2의 김제덕’이 계속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팬들이 지어준 별명 가운데 ‘제덕콩야’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다. ‘주먹밥콩야’라는 게임 캐릭터를 패러디한 것이다. 경기 때 병거지를 쓴 모습과 진한 눈썹이 콩야와 똑 닮았다. 하지만 팬들의 애정이 담긴 만큼 ‘파이팅 궁사’도 ‘아기맹수’도 그저 고마운 별명이다. 다만 앞으로 경기장에서 포효는 자제할 생각도 있다.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경기에서 기합을 넣은 건 긴장을 풀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불안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을 익혔어요. 역으로 긴장을 활용하는 법도 알았고요. 물론 제 안의 파이팅은 변함없습니다. 김제덕이 아닌 양궁이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야죠!” **K** 조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엄중한 안보상황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로 국민 안전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 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대통령령으로서는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23년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

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질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핵심요체로 우리 군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겨울에도 흐트러짐 없이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과 지휘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영웅 희생 잊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북 문경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불교 대축전

“종교유산협력관 신설… 불교 유산 체계적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는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문화재청의 새 이름)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 유산을 비롯한 종교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위기 극복에 앞장서왔다”며 “2023년 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한국을 찾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전국 사찰들이 문을 열어 세계의 청소년들을 품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 숙식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한 청소년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들 모두가 한국의 따뜻한 정을 가슴에 간직한 채 돌아갔다”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돌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더 두텁게 챙기겠다는 우리 정부의 약자복지 정신 역시 부처님의 큰 뜻을 따른 것”이라며 “나라 안팎이 여전히 어렵지만 항상 불교와 동행하며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현우 회장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달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서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매달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시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진압에 나선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가 순직한 데 대해 애도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 소방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소방장, 소방교)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K** 강경미 기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받는다

1월 31일부터 302만 7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ardsales.or.kr)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약 171만 곳(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

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000곳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반기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 납부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일·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도 알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곳에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대상 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 원 이하 [가맹점 229만 2000곳, PG 하위가맹점 133만 6000곳, 택시 16만 5000명]	0.5%	0.2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 27만 8000곳, PG 하위가맹점 14만 3000곳]	1.1%	0.85%
중소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 27만 1000곳, PG 하위가맹점 13만 9000곳]	1.25%	1.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 18만 6000곳, PG 하위가맹점 9만 2000곳]	1.5%	1.25%



자료 금융위원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사진 뉴스스

전세대출 온라인서 쉽게 알아간다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알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알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로 알아탈 수 있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알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

개월이 지난 후 12개월까지,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알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알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한 대출 등도 알아타기가 불가하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알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 알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21개 금융회사

은행(18개)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보험사(3개)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 굵은 글씨 표시 기관: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1월 29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는 전국 83만 7000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병역이행 청년 최대 37세까지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청년 연령에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가산된다.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

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기준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총당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총당할 수 있게 된다.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AI 감시체계 전국 20곳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로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1월 29일 발표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첨단과학 기반 산불 감시·예측체계 구축 ▲철저한 산불 대비 태세 확립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지방자치

단체 등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산림 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해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입산자 실화를 예방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도 전국 20곳으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는 한편 산불상황관계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의 위치정보를 19만 6000곳 추가로 탑재해 산불 발생 대비 안전을 확보한다.

또 해외 임차 헬기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진화차량보다 담수량이 3배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 11대를 추가로 도입해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에 대응한다. 지자체 운용 헬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산림청 모의 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비행교육·훈련도 연중 지원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월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된다

법인회생 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다. 그랬던 것이 비과세로

명확히 규정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 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배달·쇼핑앱 사용할 수 있게 성인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교육부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월 29일 발표했다. 2006년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

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해 문해교육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인안내기, 스마트폰, 카카오톡 활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모습. 사진 서울시 금천구청

대학원생도 대통령과학장학금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 등 총 1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00만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타 장학금·연구개발(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한국연구재

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분야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해 선발평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3~26일이다. 3월 중순에 서류심사를 하고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K**

하주희 기자

‘쉬었음’ 청년 40만 명 노동시장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만 5000명으로 확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최초 1년은 매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한다.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는 신규 지원 인원을 12만 5000명으로 늘린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만 5000명 증가한 수치다. 총 예산 규모는 6078억 원이다.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 청년 중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돼 지원 대상이 됐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라면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등 특별히 육성 또는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 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엔 여기에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해준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에 사전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1월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10일 내에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상

- 고졸 이하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 청년 등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2023년 이후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10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2023 청년구직 일자리 박람회'를 찾는 취업 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채용했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으나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했다면 2024년 3월 30일까지는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도 신설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군 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

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취업하고 3개월 이후 100만 원을 지급받고 6개월 후에 또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센터, 운영기관에서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 규모는 2024년 기준 499억 원이다. 청년 2만 4800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하면 접수가 마감된다. 다른 사업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1월 2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취약청년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K** 하주희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고 6% 금리에 매칭지원금까지

청년 적금 갈아타기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분이라면 곧 만기를 앞두고 있을 텐데요. 목돈을 어디에 넣을까 고민된다면 곧장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세요. 저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드릴게요!

'고객님께서서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알림톡(문자메시지)을 받았다면 주목!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정부가 '적금 갈아타기'를 도와드려요.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기본금리 5%에 각종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았죠. 최대 납입금액인 월 50만 원을 차곡차곡 저축했다면 약 1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기 2년이 도래한 지금 이렇게 마련한 목돈을 다시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 분을 위해 정부가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 가입을 지원해줘요.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이에요. 특히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멈추더라도 계좌는 유지돼요. 무엇보다 최고 6% 금리 혜택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 5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어요.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이에요(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앞서 말한 대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일시납입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때 정부는 일시납입에 대한 정부기여금을 매칭해서 지원해줘요.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절차

-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11곳) 애플리케이션(앱)
(2월 16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 2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링크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알림톡으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3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가입 은행 앱**
- 4 **청년도약계좌 개설 신청 은행 앱**

자료 금융위원회

가령 700만 원을 한 번에 내면 70만 원씩 10개월간 매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주는 식이에요.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 금액과 개인소득 등에 따라 달라요. 일례로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1000만 원을 한 번에 내고 월 적금 금액을 50만 원으로 신청한다면 정부지원금으로 4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는 "일시납입(납입금 1260만 원, 월 70만 원씩 납부 가정)으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856만 원"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반적금과 비교하면 연 8.19~9.47%의 이자 혜택을 받는 셈이에요.

가입 신청은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어요. 이후 알림톡으로 받은 링크를 통해 일시납입 조건과 소득 요건을 확인한 뒤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면 끝. 신청 기한은 2024년 2월 16일까지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청년도약계좌 오픈 카톡방,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ylaccount.kinfa.or.kr), 상담전화(139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조윤 기자

누리소통망(SNS) 괴식

식약처의 안전처가 녹말 이쑤시개를 식품처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각종 소스와 버무려 먹는 이른바 '누리소통망(SNS) 괴식'이 유행하는 데 대한 우려 섞인 당부다.

“와 대박! 맛있잖아 이거.”

“어? 되게 맛있어요. 소금까지 뿌리니까 혀에서 짠맛이 확 돌면서...”

‘초록색 녹말 이쑤시개 떡방’의 후기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맛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도 튀김을 만들어 양념까지 더하면 새로운 메뉴가 된다는 이색 경험에 대한 소감이 줄을 잇는다. 문제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을 따라 녹말 이쑤시개 떡방을 시도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말 이쑤시개는 옥수수·고구마 전분과 식용색소, 감미료 등으로 만들어졌지만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회용 컵·숟가락·이쑤시개·빨대 등)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는 이쑤시개 용도로 썼을 때 무해하다는 의미일 뿐 ‘먹어도 됨’을 뜻하지 않는다. 관리 기준, 품질 규정 역시 식품과는 전혀 다르다. 1월 23일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과 제조 방법,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의를 요했다. 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제조된 쌀 빨대로 파스타 면을 만드는 영상도 있는데 이 또한 명확히 식품으로 분류된 빨대가 아니라면 먹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의 발표 이후 녹말 이쑤시개를 먹는 콘텐츠는 줄었지만 이쑤시개와 흡사한 모양의 식품을 손수 만들어 튀겨 먹는 영상이 새롭게 등장했다. 진짜로 맛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대한민국 트렌드를 발표하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20년 트렌드를 전망할 당시 2019년 트렌드 상품 중 하나로 ‘괴식 및 이색식품’을 꼽았다. 무엇이든 사진과 동영상으로 인증하길 좋아하는 세대에게 생김새는 맛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SNS에서 ‘괴식 조합’이라고 이름 붙은 게시물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괴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다. 수박에 씹장을 곁들여 먹으면 오이 맛이 난다고 해 유명해진 괴식, 바나나에 김치를 올려 먹으면 고구마와 김치를 먹는 것 같다는 괴식, 아이스크림과 참기름을 더하면 고소한 땅콩버터 맛이 난다는 괴식 등은 말 그대로 ‘별난 것’이지만 먹어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특별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조합의 괴식인지 음식의 틀을 벗어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괴식인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일부 SNS에서 흥미를 끌기 위해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잘못됐다”며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하기자

이쑤시개 튀김 빨대 파스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사진: 네이버의블로그(이근하기자)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1500종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게임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른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월 30일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방향은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으로 나뉜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

민들은 생활 속에서 콘텐츠 상거래,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누리고 있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비서류 제로화·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은 매년 7억 건 이상이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민원인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B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여전한다는 것이다.

우선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

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2024년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서비스도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관공서 발급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콘텐츠 상거래,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누리고 있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고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2023년 기준 인감 등록 인원은 4142만 명,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 제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왔다”며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

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됐다. 게임은 국민의 약 63%가 즐기는 여가문화인 만큼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게임관리 위원회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

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한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정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막는 예방적인 한편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후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인력을 지정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

임 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동의의결체가 생기면 게임 이용자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만 심의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창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등급 분류 결과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 일본 등은 민간 심의기구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맡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제외)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

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초진 때도 비대면 진료 허용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으로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 ‘개인 주도 건강 정보 활용’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 또한 이전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맛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해서 환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교

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곳에서 2024년 9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는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2023년 표준서식 약 70만 건과 영상 정보 약 38만 건이 공유됐다.

정부는 2023년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을 860곳에서 2024년 1300곳으로 늘린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다운로드해 활용하는 ‘의료 마이데이터’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의료기관은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이는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근하 기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하고 필수의료에 10조 투입 4대 정책으로 의료개혁 완수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2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2023년 10월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늘려 초고령사회 대비

첫 번째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35년에 이르면 의사 수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차후 있을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이 확대된다. 규모는 의대의 수

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과 수련체계를 혁신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수련 과정을 임상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상실습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한다. 인턴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필수진료 과목

중심으로 전공의를 수련할 때 제공되는 지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또 다른 문제는 병원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빅5'로 일컬어지는 서울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전문의의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고 전공의의 업무강도가 높아져 필수의료 전문의가 되기를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이 운영되면 분업체계가 확립돼 의료 서비스가 나아질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과정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의사 배치와 관련된 법령·지침을 개선해 전문의 고용을 유도한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의 고용을 확대한 병원에는 ‘가산 수가’로 보상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필요하다면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권역의사인력뱅크’가 설치된다. 공유형 진료를 희망하는 의료인력을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전문인들이 개원에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임상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료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두 번째 정책 패키지의 목표는 지역医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를 수용하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종별 역할을 명확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2월 22일 서울 중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외과 병동에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히 하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만 쏠리는 환자들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2차 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혁신형 수가를 적용해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가칭)도 신설돼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시·도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지 제시하고 지원받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지역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강화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2024학년도부터 부산대, 전남대, 국립경상대 등은 입학 정원의 8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운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도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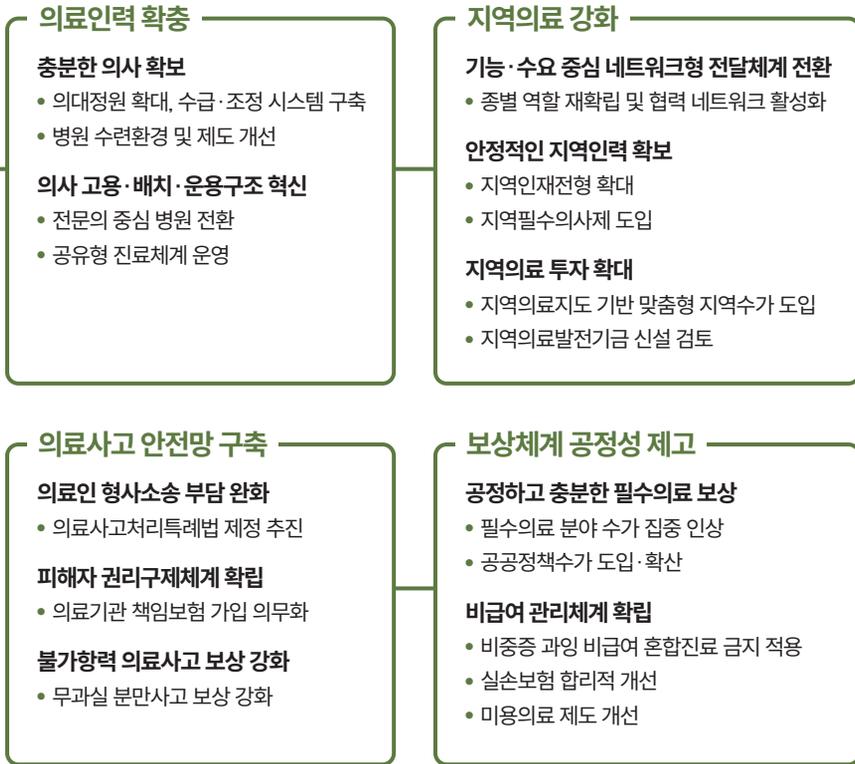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역의

료리더 육성제’는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받고 교수채용,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 등을 확보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의료수요와 이용·공급 실태 등이 담긴 ‘지역의료지도’가 개발되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할 전망이다.

필수의료의 의료인력 사이에서 기피과목이 돼버린 이유 중 하나는 잦은 민형사상 소송 때문이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는데 대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탓에 소모적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해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다만 이런 특례는 환자의 동의와 의학적인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지금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체계를 확립해 소송에 들어가기 전 조정·

중재하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70%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현실에 맞게 설정한다.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네 번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은 비필수의료,

특히 비급여와 미용에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필수의료의 특성상 난이도 등 수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정부는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분만과 소아진료에 적용할 방침이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도수 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중증이 아니면 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행위에 대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이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를 관리하고 실손보험을 개선하는 데 협업을 강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정부혁신은

스마트



하다

AI가 성범죄 영상물 찾아 자동 삭제 보이스피싱범도 AI 기술로 추적 말없이 '똑똑' 누르기만 해도 112 신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A양(15)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다. 가해자는 A양의 사진을 보고 '예쁘다'며 접근했다. 기프트콘을 선물하고 채팅방에서 몇 개월간 A양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환심을 샀다. 이후 얼굴 사진부터 속옷만 입은 사진 등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A양이 '더 이상 사진을 보내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가해자는 그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을 친구들과 누리소통망(SNS)에 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양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 영상물이 유포될까봐

두려웠다. 경찰은 A양을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결해줬다. 센터에서는 A양이 보낸 사진과 영상물을 인공지능(AI)으로 검색해 유포 22초 만에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를 요청해 확산을 막았다. 이후 센터에선 A양에게 법률과 심리치료 지원을 연계했고 부모에게도 심리상담을 지원해 가족의 일상회복을 도왔다.

2022년 3월 문을 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소위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찾고 삭제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제보받은 영상이나 사진을 토대로 구글, 트위터 등에 일일이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거나 유사한 사진과 영상을 눈으로 판독해서 수작업으로 삭제 조치해왔다. 2023년 3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해 SNS에 유포되는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추적·감시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했다. 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사람이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영상물을 검출하기까지는 평균 두 시간이 걸리지만 AI를 활용하면 3분이면 충분하다. 정확도도 200% 이상 높아졌다. AI의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와 속도는 더욱

디지털 성범죄 AI 프로그램 활용 전후 피해자 지원 환경

	기존	AI 프로그램 도입 후
피해영상물 검출속도	관련 검색어 입력부터 피해영상물 탐색까지 1~2시간	입력부터 모든 피해영상물 검출까지 3분 내외
피해영상물 정확성	영상이미지 기반의 탐지기능으로 피해영상물 탐지범위 및 정확성 제한	AI가 영상+음성+텍스트 등 통합인식 탐지범위 및 정확도 200% 이상 상승
모니터링 시간	근무시간(8시간)에 한정된 모니터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추적시스템 구축 (근무시간 외 재확산 위험성↓)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가 2023년 2월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을 사용하는 모습.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건별 범죄자의 목소리를 연쇄적으로 비교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군집화한다. 사진 C영상미디어

향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11월 AI를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총 45만 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도입 전 사람(삭제지원관)이 직접 모니터링했을 때(3만 3511건)보다 13배 많다. AI 도입 후 7개월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는 41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49건)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AI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도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해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른 SNS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재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방식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금요일 밤에 올리고 주말 동안만 짧은 시간 유포한 뒤 다시 삭제하는 식이다. 때문에 삭제지원관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AI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또한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AI가 기존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일상회

복을 지원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은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호에선 디지털 기술로 똑똑해진 스마트 정부의 우수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AI로 '그놈 목소리' 찾아낸다

“영상 합의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합의 의사 없으시면 지금부터 본인 가족이랑 지인에게 먼저 보내드릴까 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이다. 범인은 몰래 빼낸 은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70명에게 6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직접 사건에 가담한 16명을 비롯해 2023년 10월 말까지 붙잡은 조직원은 51명에 달한다.

이처럼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무더기로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케이-봄(K-VoM·The Korea Voice Analysis Model)'이 큰 역할을 했다. 케이-봄은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 2023년 2월 개발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5명을 적발한 뒤 이들의 음성을 케이-봄으로 1만 5000여 개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했다. 보이스피싱범임을 확인한 후 통화 및 계좌내역 조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추적해 2023년 10월 일당 4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케이-봄 개발에 참여한 국과수 박남인 연구사(디지털과 오디오미디어연구실)는 “이번 사건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 단속 과정에서 검거한 조직원 5명의 목소리를 기존 범죄자들의 음성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미제사건 범죄자까지 추가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케이-봄은 인공지능 딥러닝(심화 학습)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학습했다. 판별 능력을 갖춘 AI 분석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즉시 가려낸다. 국과수가 기존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향상된 모델이다. 2023년 2월 말부터 이 모델을 활용해온 국과수는 2023년 9월 까지 전년 대비 66% 증가한 78건의 사건에 대

한 음성감정을 실시해 제공했다.

케이-봄은 2023년 10월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서도 활용됐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의뢰해야 했고 결과 회신까지 2~3주가 소요됐다. 이 때문에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영장 청구 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용의자 신병 확보나 수사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케이-봄이 도입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자 특정과 영장 신청·검거 등 보다 빠른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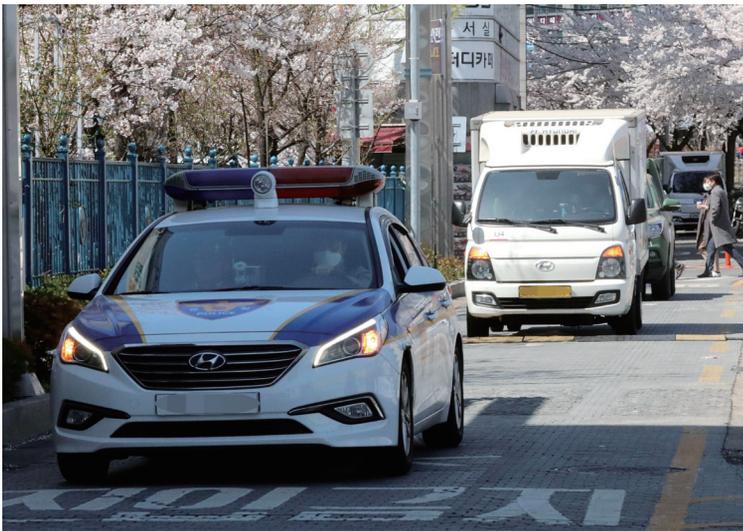
행안부의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단계마다 직접 참여해 우수사례를 뽑는다.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선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사례로 금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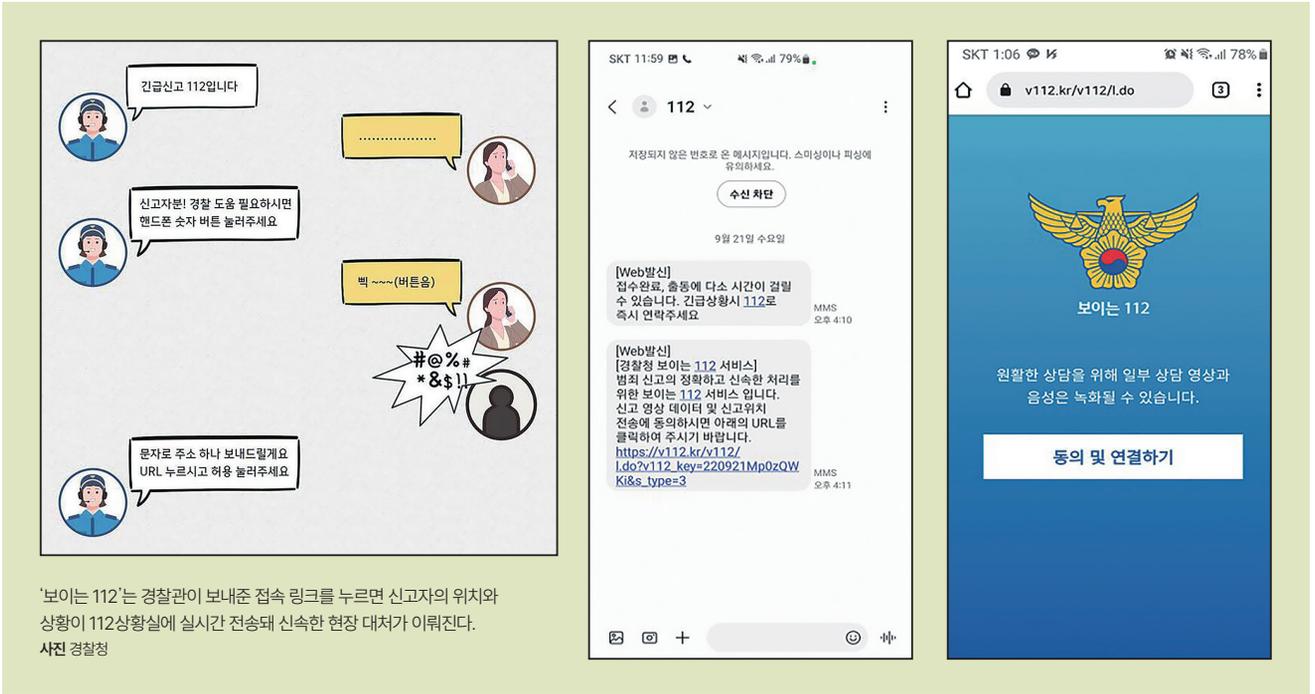
보이는 112 “말하지 않아도 알아오”

2023년 4월 B씨는 전 남자친구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전 남자친구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화장실을 간다며 긴박한 상황을 모면한 뒤 ‘보이는 112’에 신고했다.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채팅으로 위치와 상황을 알렸다. 덕분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

범죄나 재해·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 놓인 신고자가 112 신고를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이는 112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변 지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음성에 의존하는 신고로는 경찰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데 착안해 보

목소리 없이 '똑똑' 누르기만 해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이는 112'는 모바일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정부 혁신 최고사례'로 선정됐다. 사진 뉴스시스





'보이는 112'는 경찰관이 보내준 접속 링크를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이 112상황실에 실시간 전송돼 신속한 현장 대처가 이뤄진다.
사진 경찰청

이는 112를 개발했다.

보이는 112의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리면 경찰은 말 없는 신고임을 인지하고 신고자 휴대전화에 보이는 112 접속 링크(URL)를 발송한다. 신고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전송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치와 주변 상황이 공유된다.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치 확인과 현장 대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경찰관과 실시간 비밀채팅도 가능하다. 채팅방은 인터넷 검색창처럼 꾸며졌다. 검색창에 대화 문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채팅이 이뤄져 옆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보이는 112는 2022년 1월 도입 이후 500일 만에 5만 1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위치 확

인, 영상 전송, 비밀채팅 등 모바일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이는 112는 2023년 4월 행안부가 주최한 '국민 일상을 바꾼 정부혁신 최고사례'로 꼽힌 데 이어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이끌어낸 다양한 혁신 성과는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 24(innovation.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행안부는 혁신 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정부는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

강정미 기자

우리 다시 빛나자!

승리보다 빛난 14일간의 도전

대회 마스코트 ‘몽초’가 디지털 성화를 향해 눈가루를 뿌리자 하얀 눈발이 영상 속에 흩날린다. 흰 눈 속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성화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14일간 선수들의 열정과 함께 타오른 성화가 꺼지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도 막을 내렸다.

강원2024 폐회식이 2월 1일 강원 강릉시 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열렸다. ‘우리 함께 빛나자(Let’s shine)’를 외치며 1월 19일 시작된 2주간의 열정은 ‘우리 다시 빛나자(Shine again)’를 다짐하며 마무리됐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발견한 자신 안의 빛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빛나자는 뜻을 담았다.

“놀라운 경험 했다”... 감동 소감 잇따라

강원2024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었다. 전 세계 78개국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81개 세부 종목에서 승부를 겨뤘다.

대회는 강릉·평창·정선·횡성 등 4개 시·군에서 개최돼 강원특별자치도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폐회식은 자원봉사자들의 환영 속에 청소년 선수들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과 참가국 퍼레이드가 이어진 뒤에는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우정을 나누고 K-컬처를 만끽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폐회식장을 수놓았다. 각국 선수들은 개인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대회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탈리아 루지 선수 마누엘 바이센슈타이너는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많은 경험을 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칠레 스키팀 코치 누리아 파우는 “대한민국에서 마음도 배도 가득 채운 채 떠났다”며 작별인사를 전했고, 프랑스 스노보드 선수 마잘리 이아프리트 다니엘손은 “강원2024를 통해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

련됐다. 강원2024에선 203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샤인크루’가 대회 내내 경기장 안팎에서 활약했다. 봉사자들은 경기장은 물론 체험 시설과 선수촌까지 곳곳마다 자리해 프로그램 안내와 질서유지, 교통정리, 미디어 안내 등의 역할을 다했다. 특히 최고령 자원봉사자인 윤성환(71)씨를 비롯해 중장년층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눈에 띄었다. 자원봉사자 이탈률도 8%에 불과해 성공적인 대회 진행의 초석이 됐다. 폐회식에서는 대륙·종목별 선수 대표 6명이 자원봉사자 대표 6명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꽃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래퍼 이영지와 원밀리언 댄스의 축하 공연 등으로 대회는 14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봅슬레이·남자 피겨 등 불모지서도 쏠

우리나라는 대회 첫날 쇼트트랙 주재희의 금메달(남자 1500m)로 시작해 봅슬레이 소재환(남자 모노봅)이 아시



1



2

- 12월 1일 오후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강원2024 피겨 단체 프리 스케이팅 경기에서 신지아가 경기를 마치고 금메달이 확정되자 선수, 코치진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2 정선 하이원리조트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강원2024 마스코트 '몽초'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 3 1월 28일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문화올림픽 공연 '강원2024 K-컬처 페스티벌'의 모습. 사진 강원특별자치도



3



1



2



3



4



5

- 1 남자 스노보드 빅에어에 출전한 노르웨이 선수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 2 1월 29일 오후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피겨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 경기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3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듀얼모굴에서 금메달을 딴 이윤승(가운데). 사진 뉴시스
- 4 여자 3대3 아이스하키에서 각각 금·은·동메달을 차지한 헝가리, 대한민국, 중국 선수들의 모습. 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 5 여자 프리스키 슬로프스타일에 출전한 선수들이 설원을 가르고 있다. 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아 썰매 역사상 최초로 청소년올림픽에서 우승하는 등 메달 순항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스노보드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딴 이채운도 이번 대회(슬로프스타일)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며 청소년 선수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윤승은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인 프리스타일스키 모굴 종목에서 금·은메달을 모두 따냈고 김현겸은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해 차세대 스타 선수의 탄생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총 17개의 메달을 따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서는 국가별 종합순위는 매기지 않는다.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닌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조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강원2024 무대를 밟은 다른 나라 선수들도 빛났다. 태국 봅슬레이 선수 캠페올 아그네스가 여자 모노봅에서 은메달을 딴 것이 대표적이다. 캠페올은 2018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한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선수 육성사업을 통해 기량을 키웠다. 동계올림픽에서 태국이 메달을 딴 것은 성인대회를 포

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튀니지 봅슬레이 선수 조나단 루리미 역시 같은 사업을 통해 꿈을 키웠다. 이번 대회에서는 소재환에 이어 남자 모노봅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와 함께 기후 특성상 겨울스포츠 육성이 어렵거나 동계스포츠대회 참가가 힘든 나라의 청소년 선수들을 초청해 강원도에서 전지훈련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9개 나라 선수 25명이 강원2024 무대에 올랐다.

알제리, 나이지리아, 푸에르토리코,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동계청소년 올림픽 무대에 데뷔했다. 특히 튀니지는 봅슬레이 남자 1인승에 출전한 조나단 루리미가 은메달까지 따내며 자국 올림픽 기록의 새 역사를 썼다.

정국·달고나에 취한 청소년 선수들

강원2024에는 총 50만 명의 관중이 참여하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청소년올림픽은 성인올림픽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전 경기가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예약 부도(노쇼)가 많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특히 대회 초반 이어진 최강 한파에도 대회장 주변은 응원 열기로 가득했다. 강원2024 조직위원회는 난방버스와 난방텐트 쉼터 등을 운영했고 현장에서 무료 발권이 가능하도록 경기를 개방했다. 시민들은 추위를 뚫고 경기장을 찾아와 선수들에게 기운을 북돋았다. 특히 체감온도가 영하 20℃까지 내려간 1월 23일 평창슬라이딩센터에는 루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300여 명의 응원객이 모이기도 했다. 피겨스케이팅이 시작된 1월 27일과 28일에는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아 성인올림픽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각종 문화체험행사도 마련돼 관람객은 물론 청소년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 조직위는 청소년올림픽이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청소년이 우정과 문화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고 각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장 인기를 끈 것 중 하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K-팝 커버댄스 배우기'였다. 청소년 선수들은 정국, 아이브, 르세라핌 등 우리나라 대표 K-팝 스타들의 곡에 맞춰 춤을 추며 경쟁을 잇고

K-컬처를 만끽했다. 이밖에도 선수촌 라운지에는 국악과 태권도 등 공연이 연일 이어졌고 한복 입어보기, 투호놀이, 달고나 만들기 등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각국 선수들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를 봤다. 오늘만 세 개씩 먹는 중”이라고 말하는 등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 축제를 즐겼다.

대회장 밖에선 올림픽 챔피언들과 청소년들의 만남도 이뤄졌다. 1월 28일 평창올림픽기념관에서 김연아·윤성빈·유승민 전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올림픽 피어들은 사전에 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자신의 청소년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 전 세계 발달장애 작가들의 예술작품

“강원2024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1월 26일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공장에서 열린 2024 강원 연계 '로컬 100' 현장방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왼쪽)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월 31일 강릉하키센터를 찾은 중국 어린이 관광객에게 '몽초' 인형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오른쪽)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월 1일 강릉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도 진행됐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대회 폐막까지 오대륙에서 온 청소년 발달장애 화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해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들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선사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공립 예술단체도 문화예술공연을 펼쳤고 바닷가 갤러리와 강원 문화유산 전시 등 다양한 전시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밖에 ▲K-팝 콘서트 및 트로트 축제 ▲한식 만들기 등 K-컬처 체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 ▲컬링·하키 등 동계스포츠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며 대회를 풍성하게 했다.

강원도에 쏠린 관심, 관광 활성화로

정부는 강원2024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쏠린 전 세계인의 관심을 관광 활성화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로컬100은 100가지 문화명소와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해 지역 곳곳의 문화매력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월 26일 강원2024 현장을 직접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선수들을 응원한 뒤 로컬100으로 선정된 강릉의 명소들을 둘러봤다. 정부는 ▲강릉커피축제 ▲강릉 시나미 명주 골목 ▲강릉단오제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1월 31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180여 명을 직접 만나 '몽초' 인형을 선물했다. 관광객은 경남아이스하키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유치·지원하는 '제1회 국제 유소년 아이스하키 우호 교류 캠프'에 참가한 중국·일본·태국 관광객 중 일부다.

정부는 강원2024를 앞두고 일찌감치 관광상품 개발에 힘써왔다. 중국 등 현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강원2024 경기 관람이 포함된 관광상품 23종을 판매했고 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의 관광업 관계자 260여 명을 강원도로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2월까지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만 2000명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올림픽 유산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강릉 오밭, 하키센터,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올림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강원2024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그 동안 대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준 자원봉사자와 운영인력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K]

조윤 기자

‘평창’의 유산이 만든 튀니지 선수의 기적

2018평창기념재단 튀니지 등 9개국 청소년 지원

튀니지 조나단 루리미, 조국에 최초 메달 안겨

“강원2024를 통해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2년 전 한국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덕분에 봅슬레이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강원2024 봅슬레이 남자 모노봅(1인승)에서 은메달을 딴 튀니지의 조나단 루리미가 대한민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17세의 루리미는 2022년 2018평창기념재단의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프로그램 ‘뉴호라이즌’을 통해 난생 처음 동계스포츠를 접했고 2023년 개발도상국 선수 육성사업을 통해 봅슬레이 전문 선수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 그가 딴 메달은 튀니지 역사상 최초의 동계스포츠 메달이다.

루리미는 “프로그램 참여 당시 여러 동계스포츠를 경험했는데 그중에서도 봅슬레이가 가장 재미있었다. 메달을 딴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계속 열심히 해 2026년, 2030년 올림픽에도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2024에는 뉴호라이즌 사업을 통해 선발된 9개국(태국, 대만, 몽골, 싱가포르, 브라질, 콜롬비아, 자메이카, 케냐, 튀니지) 25명 선수가 참가했다. 2018평창기념재단은 2022년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에서 100여 명의 학생을 강원도로 초청해 2주간 동계스포츠 종목 7개를 체험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2023년 봄·여름 시즌에는 강원2024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을 추천 뒤 다시 초청해 전지훈련을 하도록 도왔다.

2018평창기념재단 김아람 팀장은 “훈련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한국에서 서로 어울리며 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시설 등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논의 끝에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강원2024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치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2024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기반으로 기존 시설을 100% 재활용해 치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회 예산 역시 평창올림픽(2조 7890억 원)의 3.5%인 967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8평창기념재단은 앞으로도 올림픽 유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월 23일에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활용 계획을 밝혔다. 김 팀장은 “지난해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 스펀지 썰매를 도입해 1년에 500명이 체험했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튀니지 봅슬레이 선수 조나단 루리미가 1월 24일 강릉 MMC 미디어워크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원2024 참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1월 23일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봅슬레이 모노봅 경기에서 은메달을 땀다.

따뜻하게! 풍성하게!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설 명절을 3주가량 앞둔 1월 19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 38만 58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설보다 각각 8.9%, 5.8% 상승했다. 대부분의 품목이 올랐지만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20% 넘게 상승하며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른 건 성수품 가격만이 아니다. 공공요금부터 기름값까지 줄줄이 상승하면서 고물가 속에 설 명절 보내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이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나섰다. 국민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월 16일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 명절'이란 정책 목표 아래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지원 및 격차 해소 ▲명절 연휴 대책 ▲국내 관광 활성화란 4대 정책 과제를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놴다.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자금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도 1년 유예된다. 이밖에도 따뜻하고 풍성한 혜택과 지원이 설 명절 이후까지 이어진다.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

- 16대 성수품 가격 전년 이하 관리
- 성수품 공급 설 역대 최대 25.7만 톤
- 과일 가격 안정 사과·배 등 공급 확대 및 할인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설 역대 최대 840억원 투입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개

최대 **20%** 할인

사과·배 대형마트 할인 지원

30%로 확대

설 성수품 주요 품목

최대 **60%**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189곳으로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민간보관 물량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역대 최대 840억 투입 16개 성수품 할인 지원

정부는 먼저 설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16개 주요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2023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16개 성수품은 사과, 배, 무,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오징어, 명태,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밥, 대추 등이다. 정부는 2월 8일까지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 7000톤을 공급(2023년 20만 8000톤)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민간보관 물량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배추·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만 5000톤을 최대로 방출하고 최근 가격이 치솟은 대파는 신규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추

는 제도) 3000톤을 신속 도입한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양호하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달걀가공품을 설 이전 각각 3만 톤, 5000톤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은 112만 개 공급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은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

16개 성수품 할인지원에는 설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설정한 할인지원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오른 30%다. 업계 자체 할인까지 적용하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전망이다. 다만 구입처·할인행사별로 1인당 할인 한도는 2만~3만 원이다.

할인 행사는 2월 8일까지 주요 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



서울 청량리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부착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판.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50만 원 상향했다. 사진 뉴스시스

**설 맞이
농축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기간

1월 18일~2월 8일

할인 품목

농축수산물 16개 성수품+가격에 따라 탄력 운영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할인 방법

오프라인 마트 30% 자동 할인

(한도 2만 원)

- 계산 시 30% 자동 할인
- 참여 업체 추가 할인받으면 최대 60% 할인
- * 대형·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몰 30% 할인

(한도 2만 원)

- 할인지원 쿠폰 30% 다운로드
- 상품 결제 시 쿠폰 선택 후 결제

전통시장 배달앱·온라인몰 30% 할인

(한도 3만 원)

- 할인 지원 쿠폰 30% 다운로드
- 상품 결제 시 쿠폰 선택 후 결제

전통시장 현장환급·할인 등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구매금액 30%, 한도 2만 원) 참여 전통시장 확대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69곳

-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NH카드)
- 제로페이 상품권 선할인 구매 30% 할인 (농축산물 구매 시 전통시장에서 사용)
- * 구입처별·할인행사별 한도 적용, 구입처·행사기간마다 반복 혜택 가능

예시

구입처별	1월 2주 차 롯데마트 2만 원 할인+ 홈플러스 2만 원 할인 가능
기간별	1월 2주 차 롯데마트 2만 원 할인+ 1월 3주 차 롯데마트 2만 원 할인 가능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인)와 전통시장 등에서 계속된다. 이번 설에는 행사 기간과 구입처에 따라 여러 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 주에 3곳의 대형마트를 방문하면 구입처별로 2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동일한 대형마트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방문할 경우 각각 2만 원을 할인받는다.

할인 방법은 구입처에 따라 자동할인(오프라인), 쿠폰 발급(온라인), 상품권 선할인 구입·환급 및 신용카드 자동할인(전통시장) 등으로 나뉜다. 전통시장엔 신용카드(NH카드) 자동 청구할인이 올해 처음 도입된다. 기존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품권을 선구매해야 할인됐지만 국산 농축산물을 카드로 사면 자동할인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대폭 확대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120곳, 수산물의 경우 69곳의 전통시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정부는 온기 있는 명절을 만들기 위해 민생지원과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연장한다.

전기요금은 2023년 1월 9.5%, 5월 5.3% 두 번에 걸쳐 인상됐다. 정부는 월 평균 313킬로와트시(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2023년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인 kWh당 21.1원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36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에 약 29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난방요금 할인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이자 경감, 세금 납부도 연장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절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앞서 1월 4일 ‘2024 경제정책방향’

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 민생지원 및 격차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70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1년간 재유예
(365만 가구)

소상공인 설 명절자금 약 39조 원 공급,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 접수 개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약 126만 명, 인당 20만 원),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전통시장
골목상권**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 인당 50만 원 상시 상향,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1월 29일~2월 12일)·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1월 20일~2월 6일)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에너지·고금리·세부담) 경감을 신속 추진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7% 이상에서 4.5%로 인하하는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10년간 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연장된다.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128만 명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씩 연장된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36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에 약 29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올해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도 포함된다.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올해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 역시 기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고 성수품 구매자금으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무이자 할부기간도 늘린다.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도 열린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 원 이상 구매 시) 및 경품 추첨(3만 원 이상 구매 시) 이벤트도 연다. 이와 함께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뷰티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이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에서 2월 6일까지 열린다.

아울러 정부는 설 전후 일자리사업으로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노인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근로 4만 명, 노인돌봄 3만 5000명 등이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과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달 이상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3만 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조기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저가 구간에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를 신설한다. ☑

강정미 기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재유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가스·난방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 가구당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 할인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세대 평균 15만 2000원 → **30만 4000원**
- 등유바우처
31만 원 → 64만 1000원
- 연탄 쿠폰
47만 2000원 → 54만 600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위해 39조 원 공급

- 대출 36조 7000억 원, 보증 1조 8000억 원

외상매출채권 1조 4000억 원 보험으로 인수

-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매대금 회수 지원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2월)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약 126만 명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3월 말)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40만 명
-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월)

- 금리 7% 이상 → 4.5%
- 한도 5000만 원
- 기간 10년 분할 상환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수출 증기 10일 단축, 중소·영세사업자 7일 단축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3월 25일)

-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 3개월 연장

관세환급 특별지원(~2월 8일)

- 환급금 당일 지급, 선지급·후심사로 절차 간소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2월 23일까지

1월 17일 우체국
집배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2024년 설 연휴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은 1730만 박스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로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물량이 분산될 수 있게 사전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도록 했고 주요 택배사는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택배 종사자들도 쉴 수 있게 했다. 또 영업 점별로 직원의 건강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쉬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으로 배송지연을 최소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종사자들의 과로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 소방헬기 출동준비 끝

2023년 10월 31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진행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
모습. 사진 뉴시스



설 연휴 동안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와 490여 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 도로에 차량이 정체돼 구급차가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어렵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헬기의 빠른 이송이 필요하다. 2021~2023년 3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27건 출동해 응급환자 117명을 이송했다. 구급·구조에 107건이, 화재와 산불에 20건이 쓰였고 연도별로는 2021년 44명, 2022년 54명, 2023년 19명을 이송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도로정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보면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

유슬기 기자

50년대에 마지막 배를 타고 피난오다가
대전에 정착하게 된 복부가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초막을 치고
빵을 만들어 팔던 것이
시작이었다고요

키크니 작가는 그림을 통해 대전 성심당 등 지역의
문화매력을 알리고 있다.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

좋은 사연이 좋은 그림 만들어 “독자들과 울고 웃으며 치유 받아요”

‘재미있는 소품 파는 잡화점 이름 추천해주세요.’ ‘웃기고 잡화점네는 어떨까요?’

‘엄 씨인 딸, 글로벌한 이름으로 뭐가 좋을까요?’ ‘엄에이징(Umazing)은 어떨까요?’

‘매번 제 속을 뒤집지만 한 번씩 달달한 남친 별명 지어주세요.’ ‘탕 후루 새끼.’

‘작명 천재’, ‘언어유희의 대가’. ‘키크니’를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말들이다. 그는 소위 요즘 가장 잘나가는 일러스트 작가다. 인스타그램(@keykney) 팔로워만 112만 명. 웬만한 연예인보다 팬이 많다. 인기의 비결은 독자와의 소통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독자들의 사연을 그림으로 풀어낸다. 일종의 주문자 맞춤형 제작, 게다가 ‘무료 서비스’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작가가 ‘키크니 작명소’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내용이다. 상호나 별명 등을 지어달라는 요청에 작명을 해주고 몇 줄 사연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센스가 그야말로 ‘오지다’.

제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 연재한 인스타툰(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만화) ‘키크니의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을 통해서다. 짧게는 한 컷, 길어도 열 컷을 넘지 않는 그의 그림 속엔 상황을 180도 비트는 풍자와 유머, 어느새 눈물 쭉 빼놓는 감동과 위로가 교차한다. ‘술병 나서 이틀째 설거지 안 하고 있는데 그릇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그려달라’는 요청에 ‘언제까지 그릇게 살래’라며 한숨을 내쉬는 설거지더미가 등장하고 ‘비속어 많이 쓰는 윗사람 입 다문 모습을 그려달라’는 호소에 ‘음속어’로 이야기하는 상사를 묘사해 소심한 복수도 대항해준다. 어린아이와 엄마가 서로를 꼭 안고 있는 그림엔 ‘하나다 안 아파요, 한 번만 안아보고파요’라는 말이 말줄임표와 함께 따라붙는다. 아파서 먼저 떠난 다섯 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려달라는 사연을 작가의 상상으로 풀어낸 것이다.

키크니는 2023년 말 개인전을 열었다. 일러스트 작가로는 드문 일이었

다. 스마트폰 평면에 누워 있던 그의 그림들은 영상으로, 설치작품으로 살아나 독자들과 만났다. 2024년 1월엔 키크니 자신의 캐릭터를 여러 굿즈(팬상품)로 제작해 팝업스토어도 열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작품이 됐고 작가 ‘키크니’는 브랜드가 됐다.

서울 마포구 개인 작업실에서 키크니를 마주했다. 이름처럼 큰 키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 그의 입에선 ‘감사’와 ‘치유’라는 단어가 자주 새어 나왔다. 유머와 익살로 무장한 화면 속 키크니는 사라지고 더없이 성실하고 한없이 겸손한 한 직업인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개인전 ‘일러, 바치기’는 전시를 연장할 만큼 인기가 상당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는데 막상 누군가 돈을 내고 제 작품을 보러 온다고 생각하니 무척 부담스럽더군요. ‘볼 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절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간 인기있던 작품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112만 명의 인기 일러스트 작가 '키크니'.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그는 직접 그린 그림으로 'K-공감' 독자에게 설 인사를 대신했다.



아파서 먼저간 5살아들
보내지 462일째인데
거기서는 안아프고 잘놓고 있었죠
태어나서 아프고 힘들게
지내다간 우리아들은
무슨생각할까요

하나도 안아파요..



한번만 안아보고파요..

민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영상 물이나 설치작품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구현했죠. 혼자 작업할 때보다 몇 십 배는 더 힘들더군요. 끝갈잡게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관람객이 많아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후기도 봤어요. 직접 본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평소 그림을 보고 ‘재밌다’, ‘감동적이다’라는 댓글만 봐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였고 계속 이렇게만 살아도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반응이 육성으로 터지는 것을 보니 참 신기했어요. 특히 반려견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그저 앞을 못 보는 반려견이 좀 더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건데, 제 그림이 저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만감이 교차했어요. 게다가 관람객 중엔 70~80대 어르신이나 가족이 모두 함께 와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이전까지는 상업용 삽화를 그렸어요. 어떤 반응도 피드백도 없이 기계처럼 일했죠. 당시 가정형편도 안 좋아서 그렇게 번 돈은 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로 일을 그만뒀어요. 이후 별 생각없이 SNS에 제 이야기를 그려 올렸는데 그림이 좋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치유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즉석에서 댓글로 아이디어를 받아 그림을 올렸는데 좋은 반응이 이어졌어요. 신이 나서 일주일에 두세 개씩 그려 올린 게 벌써 6년째네요.

독자 사연이 쏟아지겠어요.

일주일에 댓글은 수천 개, 사연은 수백 개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읽어요. 많이 볼수록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해서요. 독서를 안 하게 된 이유죠(웃음). 댓글이나 사연은 모두 파일로 만들어놔요. 예전 글들도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하고요. 그림 당시엔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럴 때 아드레날린 폭발입니다.

6년간 그린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정확히 모르지만 1000개는 가뿐히 넘을 것 같고 뒤이어 시작한 작명만 해도 1000개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성실했나 싶어요. 정말 즐기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중에서도 반려견이 머리에 띠 두르고 한글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의미가

깊어요. 무지개다리를 건너 반려견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려달라는 사연이었는데 나중에 만나 더 재미있게 놀려고 공부하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림을 시작으로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재밌는 사연 위주로 했는데 독자들의 호응 덕에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년 가까이 밤낮없이 일하며 마음의 병을 얻은 일,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와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가정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고통을 유머로 승화하며 버텨낸 직업인으로서의 사명, 가정경제의 붕괴가 관계의 무너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자리를 지켜낸 둘째 아들의 삶은 이제 그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오늘도 ‘출근의 기적’을 일궈낸 수많은 직장인의 모습으로, 잘난 사람은 못 돼도 ‘잘 낳은’ 자식이 되고자 하는 모든 아들딸의 모습으로, 작가는 “자신 역시 특별하지 않은 그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둘러댔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땐 어떻게 하나요?

제가 즉석에서 휘리릭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표현할 방법을 몰라 묵혀둔 좋은 사연이 많아요. 어느 순간엔 내가 나한테 잡아먹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계속해서 이전보다 나은 걸 보여줘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깐요. 생각이 막힐 땐

방도가 없어요. 내 안의 스위치를 끊임없이 켜다 껐다 할 수밖에요.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얼굴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면서 (가면을 쓴 채)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유행하는 말로 '소심한 관중' 아닌가요?

(미소 지으며) 맞아요. 실제론 잘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다 해소하는 거죠. 스스로 '작명천재'라는 등 허세도 부리지만 키크니의 유머 코드일 뿐 진짜 '나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제가 뭐라도 된 양 대접해주려고 하면 소름이 끼쳐요. 방송은 여러 차례 거절했는데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방송 한 번으로 끝이겠거니 했는데 재방송을 500번쯤 하더군요!

독자와 만나는 이벤트도 했죠.

팬미팅 같은 건 까부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버거운 사랑을 받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독자와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간 거예요.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호소에 가곤 하거든요. 여러 사람과 가면 주목받는 게 걱정됐는데 웬걸요. 인사만 한 뒤 다들 일하느라 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또 너무 웃겼어요. 그러다 산책 시간에 한 명씩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네더라고요. 제가 수줍은 성향인 걸 알고 배려해준 거였어요.

요즘 키크니는 각종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착한캠페인에 앞장서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100' 홍보

대사로 나선 것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전국 곳곳의 100가지 명소와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키크니는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하회마을 등에 얽힌 국민 사연을 그림으로 풀어내 지역문화의 매력을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로컬100 홍보대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지역의 다양한 매력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응했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으니까요. 문화유산의 역사 등을 그림으로 풀면 많은 분의 관심을 끄는 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죠. '내가 홍보대사란



것도 해봅시다' 하고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할 텐데요.

문체부에서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해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 제 역할이에요. 한 자리에 고정된 장소나 문화유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야기로 지역의 문화매력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독자 사연이 아닌 본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SNS 팔로워가 20만 명 정도 됐을 때 멋지게 계정을 삭제하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인기의 맛을 보니 또 포기하기가... 성급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독자들의 관심이 줄어들 때 다른 걸 해볼 생각이예요. 계획을 세우기보단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나요?

누군가 제 그림을 좋아해주면 좋겠다는 두근거림으로요. 독자의 80%는 직장인이에요. 출퇴근할 때 감정이 메마르잖아요. 그 시간에 그림 속에서 잠시나마 웃음과 위안을 찾으면 좋겠어요.

키크니 사연으로 뽑히는 팁이 있다면요?

기준에 다루지 않은 종류의 이야기, 누가 봐도 불편함이 없는 이야기라야 해요. 아무리 긴 글도 다 읽으니 분량은 상관없어요. 100개 정도 다양한 콘셉트로 보내보세요. 그중 하나는 되지 않겠어요?(웃음) **K** 조윤 기자

설 명절증후군 범인은 '회사?'

신인류, MZ세대의 등장으로 최근 명절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설날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할까요? MZ세대는 설날에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지, 또 어떻게 자신만의 새로운 명절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어요.

이번 설날에 무엇을 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온 가족과 모여 시간을 보낸다'고 대답한 참여자가 5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설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집에서 보고 싶었던 책과 드라마를 본다(12.5%)',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9.3%)', '그동안 밀린 자기계발을 한다(5.4%)', '여행을 간다(5.2%)', '친구를 만난다(5.0%)', '기타(6.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기타 답변 중 10명 중 1명은 설날에도 '출근한다', '일한다'고 언급했어요.

바꿔 말하면 설날에 가족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고른 참여자도 43.7%에 달합니다. MZ세대 상당수가 설날을 개인의 휴식, 자아실현, 경제활동 등을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

설 명절 이후에 명절증후군을 느끼나요? (MZ세대 참여자 634명 대상, 단위: %)

증후군 있다 32.8

증후군 없다 67.2

다.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설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청년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1인가구는 증가하는 등 가족 구조가 변하고 있는 점도 설 풍경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뱃돈 주기도 받기도 하는 MZ세대는 '어른이?'

설날이면 세배하고 덕담도 듣고 용돈도 받는 즐거움이 있죠. MZ세대는 아직 세뱃돈을 받을까요?

'집안 어른들께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다'고 답한 참여자는 169명,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한 참여자는 124명으로 전체의 46.2%가 아직까지 어른들께 세뱃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께 용돈을 드린다' 152명,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48명,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124명으로 전체의 60.4%가 조카 세뱃돈과 집안 어른들의 용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수의 MZ세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세뱃돈'이라는 전통적인

어피티가 634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1월 26~29일 어피티 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Q 설날에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 집에서 보고 싶었던 책과 드라마를 본다
-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을 간다
- 온 가족과 모여 시간을 보낸다
-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 동네에서 친구를 만난다
- 그동안 밀린 자기계발(공부, 운동 등)을 한다
- 기타

설 명절 이후 명절증후군을 느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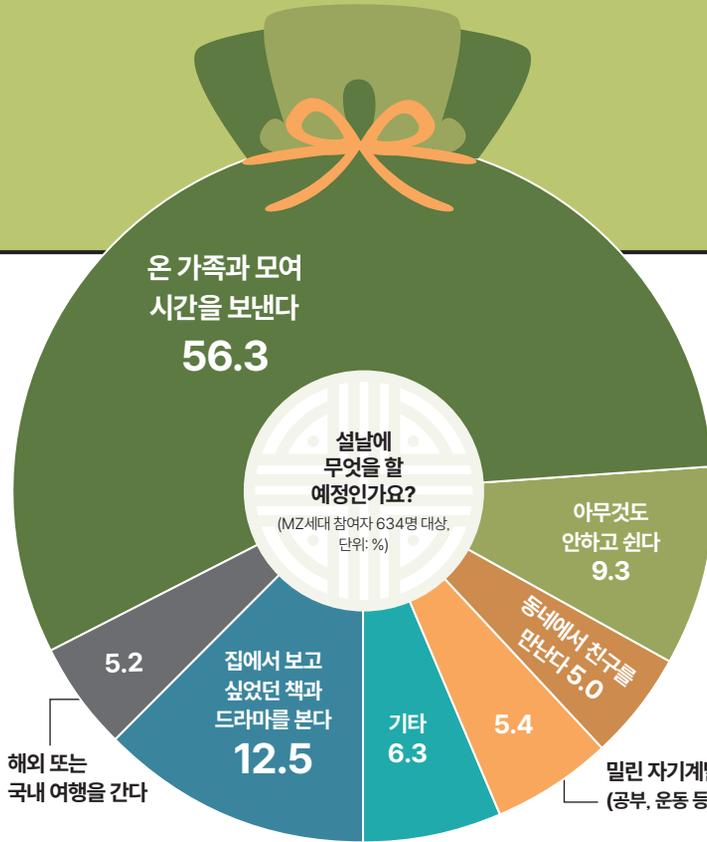
- 명절증후군이 있다
- 명절증후군이 없다

설날에 가족과 용돈 또는 세뱃돈을 주고받나요?

- 집안 어른들께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다
-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 집안 어른들께 용돈을 드린다
-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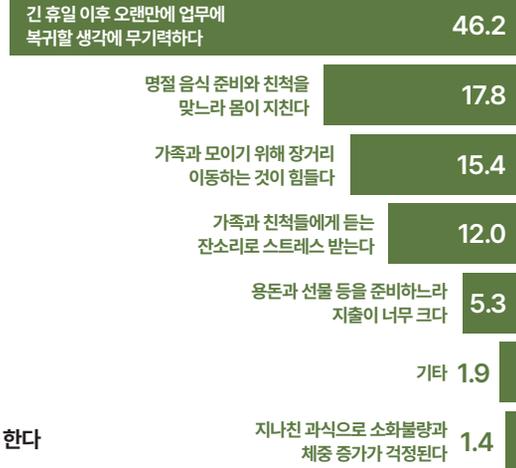
명절증후군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족과 친척들에게 듣는 잔소리로 스트레스 받는다
- 명절음식 준비와 친척을 맞느라 몸이 지친다
- 가족과 모이기 위해 장거리 이동하는 것이 힘들다
- 긴 휴일 이후 오랜만에 업무에 복귀할 생각에 무기력하다
- 용돈과 선물 등을 준비하느라 지출이 너무 크다
- 지나친 과식으로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가 걱정된다
- 기타



명절증후군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절증후군이 있다’를 선택한 208명 대상, 단위: %)



“아직 세뱃돈 받아요” **46.2%**
(293명)

“조카 세뱃돈과 집안 어른 용돈 다 챙겨요” **60.4%**
(324명)

(MZ세대 참여자 634명, 중복값 있음)

가족문화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뱃돈을 받는 MZ세대가 46.2%라는 것은 여전히 집안의 ‘어린이’로 간주되며 가족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지금 MZ세대는 성인과 아이가 공존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척 잔소리보다 무서운 출근 스트레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절 이후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MZ세대는 어떤 기분으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명절증후군이 없다’는 대답이 67.2%에 달했어요. 많은 MZ세대가 명절 기간을 부담 없이 즐기고 충분히 쉬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편 ‘명절증후군이 있다’고 대답한 208명(32.8%)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긴 휴일 이후 오랜만에 업무에 복귀할 생각에 무기력하다’고 대답한 참여자가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나’, ‘취업은 아직이나’ 등 친척들 만나면 듣는 잔

소리가 무서워 가족 모임에 끼기 싫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요. 설문 조사에서 명절증후군 원인으로 해당 선택지를 고른 참여자는 12%에 불과했어요. 개그 소재로 ‘명절 잔소리 메뉴판’까지 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는 어른들이 MZ세대와의 대화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설날 풍경이나 설 연휴 활용법이 변화하고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른들이 MZ세대의 표현 방식과 다양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느껴집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의미있는 지점은 MZ세대가 개인의 시간과 자유도 중요시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죠. 이번 설날에는 가족끼리 더 많이 소통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K**



안전하게! 활기있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 국민 비대면 진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9.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도 3% 초반으로 개선되는 등 물가와 고용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 연휴 기간 한파·폭설과 안전사고, 감염병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1월 16일 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활기찬 명절을 기조로 '설 명절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전 국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 대책이다.

먼저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 승객에 대한 KTX·수서고속철도(SRT) 요금이 최대 30% 할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해 귀성차량의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설 성수품의 수송을 위해 화물차 도심 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임시인력 6000명이 추가 투입된다.

명절에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수출 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지급됐다. 건설·제조업 등 약 20만 명의 중

맞벌이·한부모 가정

이용방법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1577-2514), 아이돌봄 누리집(www.idolbom.go.kr)

지원내용

설 연휴 돌봄 공백이 없도록 맞벌이·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요금*을 적용해 이용부담 완화
*시간당 1만 1630원 (심야[22시~익일 06시] 이용 시 50% 가산, 활동수당은 휴일기준)
* 정부 지원 필요 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포(bokjiro.go.kr)를 통해 사전 신청 필요

위기 청소년

이용방법

청소년전화1388(유선전화: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문자(1388로 문자 전송 후 상담), 라인(@cyber1388 검색 후 고민상담),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상담), 채팅·게시판(www.cyber1388.kr 접속 후 상담)

지원내용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전국 청소년쉼터(136곳) 및 청소년 상담 1388(전화·온라인 등)을 통해 상담·긴급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등) 지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2023년 4월~)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2023년 6월~) 포함

다문화 가족

이용방법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모바일 앱 '다누리'(한국생활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지원내용

설 연휴 포함 연중 24시간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상담 및 생활정보를 제공(13개 언어*)하고 긴급 구조 및 위기 개입 지원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노숙인

지원내용

설 연휴 무료 급식 지원,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사진 뉴스스

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연장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또 정부는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 관련 용자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체불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2월 8일까지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전 국민 비대면 진료 한시 전면 허용

설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된다. 명절 연휴 동안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으로 감염 확산을 예

여성

이용방법

여성긴급전화1366(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센터(www.women1366.kr)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 등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서비스 지원,
전국 해바라기센터*(32곳) 24시간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서비스 지원 등

가족

이용방법

가족상담전화(1644-6621),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채널,
여성가족부(www.mogef.go.kr) 온라인
가족상담 게시판

지원내용

설 연휴 가족유형·특성별 맞춤형 상담 및
가족정책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노인

이용방법

노인학대 신고(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지원내용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 운영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터(전국 20곳)를
정상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신속 대응

결식 아동

지원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게 부식·식품권 사전제공, 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급식 지원

*결식아동 및 보호자에게 이용 가능 식당 목록,
이용방법 등을 유선·문자·안내문 등으로 사전 안내

반려 동물

이용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지원내용

진료 가능 동물병원 정보 제공,
유실·유기동물 구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양평빙어축제

빙어낚시는 물론이고 드넓은 얼음나라에서 다양한 겨울놀이를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기간 ~2월 21일까지
 위치 경기 양평군 단월면 백동길 269-19 백동저수지
 가격 일반 1만 원(미취학아동 5000원)

추억의 그때그놀이 '청춘여행 8892'

우리나라 대중문화 패러다임의 혁명적 기간이었던 1988~1992년을 재현한 18종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기간 ~3월 10일까지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한국민속촌
 가격 경기도민 할인 2만 1000원+동반 1인 할인 (경기 거주 고객 대상)



포천 산정호수 썰매축제

마을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 추억의 얼음썰매뿐 아니라 산정호수에서만 탈 수 있는 오리썰매, 펭귄썰매, 산타썰매, 러버덕기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간 ~2월 12일까지
 위치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 104 산정호수 조각공원 일대
 가격 6000~2만 원

홍성남당항 새조개축제

12~3월이 제철인 새조개는 쫄깃하고 담백한 감칠맛이 특징이다. 새조개축제는 한겨울 동안 열리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기간 ~3월 30일까지
 위치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213번길 1-1
 가격 kg당 8만 원, 포장은 kg당 7만 원(실수율 400~500g)

겨울 축제

방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이어나간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신고·상담체계를 정상 운영하고 노숙인과 결식아동 급식도 지원된다. 장애인과 노숙인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건강위기 상황에도 대응한다.

연휴 기간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설 연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과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됐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가 운영된다.

3만 원 할인 숙박쿠폰으로 활기차게

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명절이 될 수 있게 국내 관광 활성화

공연 예술



서울 외식 이야기-오늘 뭐 먹지?

기간 ~3월 31일까지
 시간 화~일 9시~18시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생활사박물관
 가격 무료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 외식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서울의 명물 설렁탕집부터 중국집, 갈비구이집 등 서울의 외식 변천사를 보여준다.



수장고 산책: 아무튼, 동물

기간 ~2월 25일까지
 시간 화~일 10~18시 (설날 당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가격 무료

우리에게 익숙한 열두 띠 동물뿐 아니라 나비, 박쥐, 물고기, 용, 호랑이, 봉황, 학 등 현실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을 표현한 유물을 볼 수 있다.



국립무용단 설명절 기획공연 '축제·祭'

기간 2월 7~11일
 시간 수 19시 30분, 목·금·토·일 15시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가격 전석 3만 원

품격 있는 전통춤의 진가를 선보여온 국립무용단의 명절 기획공연, 갑진년 남산의 새해를 열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춤 한마당이 펼쳐진다.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팬'

기간 ~2월 25일까지
 시간 토·일 13시 30분, 15시 30분 (단, 2월 10~11일은 공연 없음)
 장소 용인어린이상상미술관
 가격 전석 1만 2000원

오늘은 나무꾼에게 선녀의 목욕 장소를 알려준 사슴 코딱코의 재팬이 있는 날. 선녀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슴 코딱코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민속놀이 한마당

화 방안도 추진된다. 6월 한 달 진행하던 ‘여행가는 달’을 2월에도 추가 지정해 국내 여행 수요를 확산할 방침이다. 여행가는 달에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이 2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5만 원 초과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3만 원을 할인받는 쿠폰이다.

지역 관광과 결합한 철도여행도 주중 50%, 주말 30% 정도 할인된다. 관광열차 5개 노선에 대한 50% 할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이나 렌터카도 최대 50% 할인된다. 대형 온라인여행사(OTA)와 연계된 중소여행사의 국내 여행 상품은 5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되고 1700명 규모의 지역 관광지 기차여행 이벤트도 개최된다.

이밖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지난 6년간

국립경주박물관

전통 민속놀이 체험(웃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기간 2월 9일, 2월 11~12일

국립광주박물관

우리 문화 한마당
(웃점, 전통놀이 체험, 특별공연, 만들기 체험 등)
기간 2월 9일, 2월 11~12일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축전(민속·전래놀이, 떡메치기, 생활도구 체험, 전통공예)
기간 2월 9~12일

국립대구박물관

설 맞이 전통 만들기 체험, 민속놀이, 문화행사
기간 2월 9일, 2월 11일

국립부여박물관

설 맞이 전통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기간 2월 9일, 2월 11~12일

국립진주박물관

설 맞이 복(福)나들이, 전통공연, 한복이벤트, 포토존, 민속놀이
기간 2월 9일, 2월 11~12일

국립청주박물관

문화행사, 어린이 체험키트 배부, 소원엽서, SNS 이벤트
기간 2월 9일

국립김해박물관

새해 맞이 전통문화 공연, 유물모양 떡 나눔
기간 2월 9일, 2월 11일

국립춘천박물관

문화공연, 설 맞이 기념품 증정 이벤트
기간 2월 9일, 2월 12일

국립나주박물관

민속놀이 체험, SNS 이벤트
기간 2월 9일, 2월 11~12일

국립익산박물관

체험키트 배부 행사, 소원엽서 적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기간 2월 8~11일

자료 관계부처 합동



국립국악원 설공연, 청룡이 나르샤
기간 2월 10일
시간 15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가격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 1만 원

청룡을 만나 용궁에서 펼쳐지는 성대한 잔치. 유쾌한 재담과 함께 국립국악원 연주단이 전하는 멋과 신명이 넘치는 국악으로 설 명절에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갑진년, 국악으로 여는 새해:미르해 첫날
기간 2월 10일
시간 15시
장소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가격 전석 1만 원

공연은 ‘푸른 용의 기운으로 안녕바라기’, ‘용의 기백으로 도약하기’로 구성되며 ‘문굿과 비나리’, ‘학연화대처용무합설’,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과 줄타기 등이 펼쳐진다.



엄정순 '흔들리는 코끼리'
기간 ~3월 16일까지
시간 화~토 11시~19시
장소 두손갤러리

‘보는 것’에 대해 질문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코끼리 비유를 통해 작업한 드로잉, 회화, 사진, 조형 등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매직랜드 매직벨룬쇼’ 미술&풍선-성남
기간 ~2월 12일까지
시간 월~금(11시, 14시), 토~일(11시, 14시, 16시 30분)
장소 경기 바론아트센터 바론아트홀
가격 전석 3만 5000원

미술·풍선·뮤지컬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풍선을 못 받아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직원에게 풍선을 선물한다.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 누리집 '휴가샵' 등에서 숙박, 교통 등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년에 비해 확대된 최대 15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할 전망이다.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우선 연휴 기간 전국 22곳의 궁·능·유적지가 무료 개방된다. 경북궁·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서오릉·서삼릉·김포장릉 등 조선왕릉이다. 전국 각지의 박물관과

과학관 등에서 각종 문화·체험행사도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해 전국 국립 박물관 11곳에서는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열린다. 2월 10일 설날 당일에는 휴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발달장애 아티스트 그룹의 융·복합 전시 특별전 '인생 프리즘'이 개최되고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설 맛이 '수족관 먹이주기' 등 체험행사가 열린다. 서울과 경기 과천, 충북 청주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2023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기록하며 관광 강국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설 연휴 동안 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과 편의가 제공된다. 2월 한 달간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하면 20% 할인해 준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K-뷰티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2월까지 연장한다. 사후면세 서비스란 방한 관광객이 일반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면세 서비스를 말한다. 방한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늘려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사후면세 서비스를 통해 15만 원 이상 구매할 때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던 행사를 한 달 더 연장한다.

박물관 특별전시

국립중앙박물관

'갑진년맞이 용을 찾아라' 등 역사유물 특별전시
기간 1·2월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기간 3월 17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참여형 무료 전시 '서울 구경 가자스라',
각종 공연 등
기간 1·2월 중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기획전시 '가면의 일상, 가면극의 이상',
'용띠해 특별전'
파주 개방형 수장고 전시 '수장고에서 맞는 설'
기간 2월 9~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설 연휴 국립현대미술관 전관 무료 관람,
'2024 새아침 미술관' 설 연휴 SNS
방문인증 이벤트
기간 2월 9일, 2월 11~12일

궁·능 유적지 무료개방

4대 궁·종묘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서오릉, 서삼릉, 김포장릉, 파주장릉,
파주삼릉, 용건릉, 동구릉, 광릉, 흥유릉,
사릉, 태강릉, 선정릉, 현인릉,
의릉, 정릉, 영취원·송인원,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기간 2월 9~12일



경복궁 근정전. 사진 문화재청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을 비롯한 성수기에 늘어날 항공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제선 운항을 2023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 2023년 12월 국제선 운항 횟수는 4200건으로 91% 늘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월 국제선 운항 횟수는 2019년 말 운항 횟수의 99.6%까지 따라잡게 된다.

2024년은 민생 회복의 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효정 기자

교통

고속도로 무료, 고속철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고속철도 승차권 할인
- ※ KTX·SRT 역귀성(최대 30%), KTX 4인 가족동반석(15%)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 2월 9~12일

병원

다니던 병원 문 닫았다면 비대면으로 진료받으세요!

- 비대면 진료 기관 확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비상연락처

-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 응급환자·화재 발생 119
- 긴급복지지원 129
- 실시간 도로상황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1588-2504
- 고장·사고 신고
- 가스 1544-4500
- 전기 1588-7500
- 수도 지역번호 +120
- 여성긴급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정부민원상담 110

숙박
쿠폰
20만 장

휴가비
지원
15만 명

비수도권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 배포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 제공

1차 9만 장

배포·사용: 2월 7~25일

2차 11만 장

배포: 2월 27일~3월 31일
사용: ~4월 14일

근로자 휴가 지원 15만 명 모집(2월 1일~)

정부·기업이 20만 원 여행경비 지원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부(10만 원) + 기업(10만 원) + 근로자(20만 원)

5년 이상 참여 중견기업

정부(5만 원) + 기업(15만 원) + 근로자(20만 원)

신청·문의

전담지원센터 1670-133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택배 근로자 부담 덜도록 특별관리기간 운영(1월 29일~2월 23일)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임시인력 6000여 명 투입

- 택배기사 연휴 휴무 보장
- ※ 주요 택배사 설 연휴 2일 전부터 집화 제한
- 지자체·공공기관 사전주문 독려
-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한시 허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길조? 유해 동물? 까치의 본색

“까치는 봄·여름에는 나무에 사는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어 도움을 주기도 한다. 반면 과수 농가 입장에서 까치는 주적이다. 감귤, 감, 딸기 등의 과실을 쪼아 먹고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뚫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멍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 래요.” 이 동요는 일본 노래밖에 없던 1924년 일제강점기 시절 작곡가 윤극영이 아이들을 보며 지은 노래다. 동요 속의 까치는 일제 암흑 속에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희망으로 해석돼 의미 있는 동물로 자리 잡았다.

까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길조로 소개된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거나 흰 이를 주면 새 이를 가져다주는 이빨 요정의 역할도 하는 희소식과 행운의 전령사다. 이런 까치가 요즘 흉조 취급을 받고 있다. 환경부 지정 유해 야생동물이자 생태계를 교란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이다. 또 까치는 외래종인 동시에 침입종이러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맹금류 공격하고 다른 새 알 약탈하는 유해 조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설인 양력 1월 1일이 설날이었다. 해방 후 양력설은 ‘신정’, 음력설을 ‘구정’으로 불렀고 구정은 1985년 ‘민속의 날’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89년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설날’ 이름을 다시 찾았다. 설날을 되찾은 1989년은 때마침 ‘일간스포츠’ 창간 20주년이 되는 해였고 아시아나항공 취항 1주년의 해이기도 했다. 이를 기념해 두 회사는 전국 각지에서 포획한 까치 46마리를 비행기에 싣고 와 제주에 방사했다.

당시 제주에는 까치가 없었다. 철새가 아닌 까치는 다른 새들보다 오래 날지 못해 바다를 건너는 게 쉽지 않다. 도민들은 제주에서도 까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번식력이 빠른 까치는 불과 10년 만에 수만 마리로 번식해 애물단지로 변했다. 까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정전까지 일으키는 주범이 된 탓이다.

까치는 잡식성이라서 쥐와 같은 작은 동물뿐 아니라 곤충이나 나무 열매, 감자 등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따라서 봄·여름에는 나무에 사는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어 도움을 주기도 한다. 반면 과수 농가 입장에서 까치는 주적이다. 감귤, 감, 딸기 등의 과실을 쪼아 먹고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뚫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또 전봇대 배전반 등에 나뭇가지로 동지를 짓는 과정에서 가끔 철사와 같은 금속성 물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 합선에 의한 정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제주의 까치 관련 정전 피해액은 연간 10억 원이 넘는다.

제주에는 까치의 천적이 거의 없다. 까치는 여름철에는 단독 생활을 하지만 겨울이 되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멧금류를 공격해 쫓아낸다. 다른 새의 알을 훔쳐 먹거나 파충류를 포식하고 작은 새들도 공격한다. 명실상부한 하늘의 조폭이다.

실제로 제주에 많았던 까마귀들이 까치의 유입 이후 경쟁에서 패배해 밀려났다. 더구나 제주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희귀 조류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제주 고유 생태계의 위협이 심각하다. 물론 까치에 의한 이런 피해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일이다.

현재 제주에 서식하는 까치 수는 10만~15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는 2000년 까치를 '유해 야생조류'로 지정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수렵 동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만 매년 2만 마리 이상을 포획하고 있다. 제주 시와 서귀포시는 까치를 잡는 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포획한 까치 1마리당 5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까치가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다.

까치는 다른 새들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해 농부들이 쓰는 조류 퇴치법이 잘 먹히지 않는다. 피해가 뚜렷하지 않고 현지 생태계에 순응한 지역의 까치는 공존을 모색해야겠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특히 멸종 위기종의 생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다.

유해 외래종이 입히는 세계 경제 피해액 한 해 560조 원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 제주 까치를 '생태계 교란 야생 동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아예 까치의 알을 제거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외래생물은 급속히 그 개체수를 확산하며 새롭게 정착한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외래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외래 생물 또는 외래 생물이 아니더



까치가 전신주 위에 집을 지으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KBS청주 캡처

라도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1998년 2월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렁(블루길), 큰입우렁(배스) 등 3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이후 그 수가 늘어 현재 총 37종이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유해 외래종 확산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겪는 문제다. 2023년 9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인간 활동에 따라 서식지를 옮기게 된 외래 생물종은 3만 7000여 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500종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입 외래종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49개 나라의 86개 연구팀이 벌인 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는 적어도 218종의 외래종이 1200여 생물종의 멸종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 외래종의 급증으로 경제적 피해가 1970년대 이후 10년마다 4배씩 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한 해 피해액 규모가 4230억 달러(약 560조 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사람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하고 자연에 개입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래 생물을 고의로든 우연이든 새로운 지역으로 함부로 옮기는 것은 해당 지역의 농업이나 재래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번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 한번 유입된 생태계 교란종은 회수나 소멸이 어렵다. 따라서 외래종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상책이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할 때까지!**
**‘희망리턴패키지’가
도와줍니다**



- 1 2023년 7월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식. 사진 유한대
- 2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9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기업인 히즈독을 방문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3 희망리턴패키지로 재창업에 성공한 위메이크북의 신정범 대표.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2023년 11월 핸드메이드 가족공예 공방창업 과정 수료식에 참여한 소상공인들. 사진 유한대

1998년 서울에서 빵집을 개업한 A씨는 2022년 8월 24년간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았다.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로 입소문이 난 베이커리카페가 늘면서 오프라인으로만 영업하는 A씨 빵집은 고객이 줄었고 주변에 젊은층의 취향을 겨냥한 카페가 생기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A씨는 적자와 폐업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폐업 후 1년 2개월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재취업 교육을 받았다. 이후 정규직 제빵사로 취업에 성공했다. “빵집을 운영했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제빵사로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A씨는 “지금은 비록 직원이지만 사장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웃었다.

한국은 소상공인 비율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5%로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을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데이터를 가공해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외식업 폐업률은 10.0%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전국 폐업률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은 폐업률이 12.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을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경영 위기, 폐업, 교육, 재기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경영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지원’이 제공된다.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원스톱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3.3㎡당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1대 1 심화교육을 해준다.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 기회도 준다. 재취업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2023년 1464억 원을 지원했다. 2022년보다 26%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재창업’도 지원한다.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론칭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폐업하게 된 B씨는 전혀 다른 분야로 재창업에 성공했다. B씨는 즐겨 마시던 와인을 기반으로 한식과 전통주까지 함께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와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와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매장 인테리어를 위해 플로리스트 학원까지 다녔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B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사업화자금 3000만 원을 지원(자기부담 50%)받고 회계, 경영, 조리방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원하는 매장을 오픈한 B씨는 “외식사업에 처음 도전했는데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덕분에 재창업을 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

교육·멘토링에 재창업 자금도 지원

재창업 지원은 ‘교육’과 ‘사업화’로 나뉜다. 재창업 교육은 경영 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을 통해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을 유도한다.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전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여기까지 왔다.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좌절의 터널 속에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의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되찾기 바란다.”

교육을 진행하고 채무를 해결한 소상공인에게 회계·재무, 마케팅, 경영 교육도 지원한다. 재창업 사업화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유망·특화 분야로 재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외부 전문기관이 함께 이들의 교육에 참여해 교육, 멘토링과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재창업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 번 창업에 실패한 이들에게 재창업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오랫동안 출판업에 종사한 신정범 씨는 출판사를 차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결국 창업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시 다른 출판사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재창업의 꿈을 버리지 못했던 신씨는 2022년 지인의 소개로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에 신청했다.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거쳐 같은 해 7월 인공지능(AI) 원고 작성 매니지먼트 플랫폼인 위메이크북을 설립했다. 위메이크북은 이후 기술특허 1종과 시스템 관련 특허 5종을 출원해

‘2023년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신 씨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여기까지 왔다”며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좌절의 터널 속에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의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되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사업은 서울에서만 약 1000건의 소상공인(경영진단완료 483건, 사업목표 463건)을 지원했다.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컨설팅·사업화 자금 지원은 총 161명이 혜택을 받았다. 2024년 1월 9일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한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을 방문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K**

유슬기 기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하세요

민간 금융기관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 원 지원

정부는 1월 29일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은 기준금리에 연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지역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960년대산 라면·1971년산 웨하스... 맛있는 추억이 전시된 곳 과자박물관을 아시나요?

“옛 기억을 되살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 추억과도 같은 도시락 경험담을 설명해주실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근현대사 과자박물관 인천상회’를 찾은 한 관람객이 방명록에 남긴 글이다.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인천상회는 자칭 추억발굴수집가 이이교(46) 씨가 만든 곳이다. 2023년 3월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과자와 빵, 음료 등 제과업체 600여 곳의 제품 1만 2000점 이상이 전시돼 있다. 중장년층 이상 세

대와 같은 시대를 살다 단명한 제품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품도 있다. 과자마다 숨은 역사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 씨가 20년 넘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집해 과자봉지 속 추억을 살려내고 낡은 포장지에 이야기를 붙여넣었다. 박물관 터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옛 목욕탕 건물이다. 근처에 발굴차 들렀다가 이곳을 발견한 이 씨가 임대인과 협의한 뒤 전기 배선 작업, 인테리어 등 곳곳을 손수 고쳐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켰다.

“지금부터 추억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시절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먹었던 과자, 빵, 아이스케키를 마음껏 구경하세요.”

‘맛동산’의 원래 이름은?

이 씨의 인사말과 함께 관람이 시작된다. 전시관은 오래전 간식거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투명한 비닐 속 종이 상표가 전부였던 포장지가 어떻게 오늘날 은박 포장지가 됐는지 들여다보면 포장 기술의 변

지금은 볼 수 없는 과자봉지를 비롯해 1만여 점의 전시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사진 C영상미디어





(왼쪽) 과자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추억의 양은도시락 뚜껑마다 그려진 그림들이 흥미롭다. 사진 C영상미디어

천사를 알 수 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과거를 추억하고 누군가에게는 역사를 이해하는 공간이 된다.

전시관은 크게 ▲과자 ▲사탕·아이스크림 ▲라면 ▲병 ▲추억(곤로, 양은도시락통, 축음기, 공중전화기 등)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다. 가장 먼저 1971년 판매가 10원으로 출시된 과자 ‘웨하스’의 최초 포장지가 관람객을 맞는다. 여전히 판매 중인 ‘짱구’ 과자부터 지금은 볼 수 없는 ‘자야’, ‘뽕뽕이’도 비슷한 시기에 처음 출시됐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쇄 비닐 포장지가 확산됐다.

유사 제품군은 액자에 담겨 전시돼 있다. 한 액자에는 1983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판매된 ‘동물원 비스켓’을 필두로 10여 개 업체가 내놓은 유사품이 모여 있다. 이 씨에 따르면 40~60대 관람객은 이 과자만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 “어? 이거!”를 외친다고 한다. “다들 잊고 살던 그 시절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생하게 추억을 쏟아낸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기억을 나누는 걸 보면 반가우면서도 울컥한다”는 게 그의 얘기다.

과자의 기원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는 재미도 쏠쏠하다.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과자 ‘맛동산’의 원래 이름은? 답은 ‘맛또나’다. 1975년 3월생 ‘맛또나’는 판매실적 저조로 시판 6개월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온갖 고소한 맛이 모여 있다’는 뜻의 ‘맛동산’으로 개명한 후 장수 과자가 됐다. 국내 최초 라면형 과자 ‘뽕뽕이’는 1960년대 라면공장 직원들이 라면 부스러기를 가지고 나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튀겨 팔았던 것이 제품화돼 국민 과자가 됐다.

같은 과자를 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광경도 흥미롭다. 가족 관람객이 한 과자 앞에 서더니 부모는 “다이제스티브”, 딸은 “다이제”라고 불렀다. 둘 다 맞는 이름이다. ‘다이제’의 시초는 1982년 오리온이 영국 맥비티와 기술 제휴해 만든 ‘다이제스티브’다. 1997년 제휴가 끝나면서 ‘다이제’라는 독자 브랜드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다.

신기해서 웃고 추억에 울고

2023년 품귀 현상을 빚었던 ‘떡태깡’이 사실은 1985년 ‘명태맛깡’으로 이미 출시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씨는 “‘명태맛깡’이 1986년

유행한 만화 ‘캐걸 조로’의 이름을 따 ‘노가리제트’가 됐다가 단종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타잔’, ‘호호아줌마’, ‘아똥’ 등 인기 있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을 딴 과자봉지들이 벽에 걸려 당시의 시간을 소환하고 있다.

라면의 경우 포장이 뜯기지 않은 채 전시된 것이 다수다. 과자봉지는 땅에서 발굴한 것이 대다수인 반면 라면은 주로 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땅과 폐가 외에도 유품정리사를 통해 옛 물건을 수집한다. 수십 년 전 발행된 신문, 잡지, 상장 등은 그렇게 모았다.

술병, 잉크병, 음료수병 등 우리나라 병의 역사가 진열된 공간도 있다. 1960년대까지는 제조 기술이 부족해 병 모양이 균일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부터 일정한 모양의 병들을 볼 수 있다. 삼성이 고 이병철 창업주 시절 생산한 소주병도 눈에 띈다.

관람객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아빠 손을 잡고 둘러보는 초등학교생부터 엄마를 모시고 온 중년, 친구끼리 단체 관람하는 노년도 있다. 연령대별로 표정도 다양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수동 타자기를 보고 신기해 하는 어린이, 옛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발굴수집가’ 이이고 씨

“과자 봉지 주우려다 죽을 뻔...
식품 역사 보여주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다섯 살, 호미 하나 쥐고 산에 올랐다. 큰어머니를 따라 약초를 캐러 다니던 시절까지 따지면 이이고 씨의 수집 경력은 40년이 넘는다.

“보라색 꽃을 따서 큰어머니께 드리면 ‘부라보콘’이나 ‘환타’를 주시더라고요. ‘어? 약초를 따면 간식이 생기네’ 하면서 혼자 약초 캐러 다녔어요. 다섯 살 아기가 그랬다고 하면 믿기 힘들겠지만 그 시절 시골에선 그렇게 살았어요.”

성인이 된 뒤론 약초를 캐 담금주를 만들었다. 담금주를 보관할 옛 술병들이 필요했다. 산 속 땅을 파면 누군가 묻어 놓은 술병들이 나왔다. 땅을 파다 보면 수십 년도 더 된 물건들도 나왔다.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였지만 그에게는 보물 같았다. 그 재미에 더 땅을 파고 다녔다. 그렇게 ‘추억발굴수집가’가 됐다.

추억을 찾아 떠나는 일로 돈을 벌 수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전기업자로 일하며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장비를 사서 이곳저곳에서 추억을 캐고 다녔다. 전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전기업자가 된 진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지적편집도를 토대로 발굴 장소를 모색했다. 현재는 산이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살았던 곳 위주로 골랐다. 특히 으스스한 폐가는 절대 지나칠 수 없었다. 2020년에는 경남 통영시 가왕도(무인도)에 발굴을 하러 갔다 풍랑 탓에 섬에 갇혔다. 식량이라고 점심 식사용으로 행긴 빵 몇 조각이 전부였다. 주린 배를 쥐고 폐가에 들어가 곳곳을 뒤졌다. 소금으로 채워진 장독대 안에서 2003년산 라면을 찾았다. 기름이 채워진 곤로 옆에는 성냥까지 있었다. 근처 우물에서 길어온 물에 그 라면을 끓여먹었다.

“배탈이요? 전혀요. 오래된 라면이라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소금 덕분에 괜찮았어요. 어릴 때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라면을 먹는 건 일상이었어요(웃음).”

위험한 순간도 많았다. 수풀 사이로 보이는 라면 봉지를 들춰다가 땅벌 100여 마리의 공격을 받고 뽀족한 쑥대 끝에 눈이 찢려 실명 직전까지 갔다. 절벽에 걸린 라면 봉지를 주우려다 굴러떨어진 적도 있다.

“땅벌 사고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순식간에 옷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사진:신영미디어

어휴. 웃이고 장비고 다 집어던지고 30분을 뛰어서 내려왔어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병원까지 가느라 혼났어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수집을 이어간 데는 추억이 주는 가치 때문이라고 했다. 오래된 빵 봉지와 라면 봉지를 볼 때면 어머니 생각이 가득해진다.

“형편이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으로 꼭 간식을 사주셨어요. 7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일을 다니세요. 내 자식들 고생한 돈으로 어떻게 먹고사냐고, 당신 쓸 돈은 직접 벌겠다면서요.”

전국을 누비며 모은 수집품은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 외에도 고향집 창고에 쌓여 있다. 이 씨는 제과기업이 자사 제품을 전시한 박물관은 있지만 인천상회처럼 수백 개 업체의 흔적을 보관한 과자박물관은 없다고 말한다.

판매에 관한 욕심은 없다. 이 씨의 목표는 오직 박물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천상회는 강화군 사립 박물관으로 아직 공인받지 못했다. 정식 큐레이터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재정 상태론 인력 고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박물관으로 정식 인정을 받아야 정부 지원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죠. 단순히 옛 기억을 떠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품의 역사를 알려주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활짝 웃는 관람객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과자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는 이들도 많다. 이 씨는 최근 60대 딸과 80대 노모가 찾아와 관람하다가 양은도시락통이 진열된 곳에 서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봤다. 사연인 즉 엄마는 고등학교

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딸이 그리워 딸의 도시락통을 매일 쓰다듬었다고 한다. 양은도시락통을 보자 엄마는 그때의 그리움이, 딸은 미안함이 떠올라 눈물을 흘린 것이다.

이 씨는 더 많은 사람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과자박물관을 만들었

는데 자신도 추억을 선물받는 곳이 됐다고 했다. 관람을 마친 한 중년 남성이 별칭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머쓱하게 웃었다. 입장료(6000~8000원)로는 운영비 감당이 안 되지만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 씨가 이곳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이유다. [K] 이근하기자

용 이 처음부터 용 은 아니 었 다



'운룡도'. 종이에 색, 222×217cm, 국립중앙박물관

‘운룡도’는 조선시대에 만든 작품입니다. 용 한 마리가 시커먼 구름을 무대 삼아 용틀임을 합니다. 그림 하단에 세찬 파도가 출렁이는 것으로 보아 용이 방금 전 물속에서 솟아오른 듯합니다. 저 거대한 몸뚱이의 용을 현실에서 맛닥뜨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겁하다 못해 오금이 저려서 도망치기도 힘들 것입니다.

물속에서 조용히 헤엄치던 잠룡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친 이유는 여의주(如意珠) 때문입니다. 여의주는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는 구슬’을 뜻합니다. 용의 여의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이고 도깨비의 요술방망이입니다. ‘운룡도’에서 용은 여의주를 잡기 위해 입을 썩벌린 채 크르릉거립니다. 잠시 후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여의주를 움켜질 것입니다.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용이 신령한 동물이 되기까지

올해는 갑진년(甲辰年), 용의 해입니다. 용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청룡입니다. 동양에서는 동, 남, 중앙, 서, 북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방위의 색을 청, 적, 황, 백, 흑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오방색입니다. 올해가 용의 해이고 갑(甲)은 동쪽에 위치한 천간이니 갑진이 청룡인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동서남북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지킨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을 천지사령(天地四靈)이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신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사신도, 즉 천지사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은 방위신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도 사령의 우두머리로 추앙받으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령의 나머지는 봉황, 기린, 거북입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을 왜 사령이라고 했을까요? 용은 변화에 능하고 봉황은 난세를 다스릴 수 있으며 거북은 길흉을 점치고 기린은 성품이 어질고 온후하기 때문입니다. 방위신이든 사령이든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모두 상상의 산물입니다. 거북이조차도 현존하는 실물과 다릅니다.

우리 민족이 상상의 동물인 용을 신령한 동물로 여긴 까닭은 용이 비를 관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경민족에게 물은 절대적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강에 사는

용신에게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부들은 배 한 척에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아갈 때 용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용은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신으로 추앙받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주는 벽사의 선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용과 이무기는 한 곳 차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도 용의 상징성을 자기화하고자 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 왕의 평상을 용상, 왕의 옷을 곤룡포라 부르고 왕의 즉위를 용비(龍飛)라고 부른 이유도 용의 신성함을 취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용비어천가’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잉어가 용문이라는 폭포 아래에서 급류를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어약용문(魚躍龍門)’의 스토리도 모두 용이 가진 절대강자의 모습을 흠모한 결과 파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용이 처음부터 용은 아니었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뱀은 이무기라 부릅니다. 부합되지 않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세월만 죽이면서 살다 보면 남는 것은 심술과 독기뿐입니다. 흔히 성질이 사납고 심술궂은 사람을 보고 ‘이무기 같다’고 비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용에 대한 거대한 로망을 품고 있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무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용이 되려면 용문의 거친 물살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헤엄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함을 얻고 권능을 드러냅니다.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봉황을 잘못 그리면 닭이 되듯이 용을 잘못 그리면 뱀이 됩니다. 용과 이무기는 한 곳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반짝 열심히 하다 작심삼일을 넘지 못하는 병도 이무기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용두사미(龍頭蛇尾)라고 합니다.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이니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무기에서 벗어나 용이 되는 비법이고 여의주를 얻는 노하우입니다. 드디어 새해를 여는 설날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힘차게 나아가 용처럼 승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조정욱 미술평론가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문희영

“기름진 명절 음식엔
전통주 칵테일 최고!
로컬이 녹아있는
전통주를 세계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새해 아침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과 술을 나눠 마셨다. 이러한 풍습을 ‘음복(飲福)’이라고 하는데 ‘복을 마신다’는 뜻이다. 술을 나눠 마신 자손들이 조상의 덕을 입어 잘살게 해달라는 의미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차례주 하나도 허투루 고를 수가 없다. 이왕이면 설 명절답게 가족과 전통주를 나누며 복을 기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전통주 고르는 일이 쉽지않은 않다. 마

트에만 가봐도 전통주 종류가 너무 다양해 어떤 술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 막걸리만 해도 맛과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맥주와 소주의 차이는 알아도 약주와 청주, 증류주의 차이에 대해선 막연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주 소믈리에 문희영(26) 씨를 만났다. 전통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전통주 소믈리에에는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전통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다.

문 씨는 2023년 9월 열린 ‘제13회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의 우승자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주어진 시간 동안 ‘음식과 전통주의 조화’, ‘전통주 서비스’, ‘전통주와 칵테일 서비스’ 등을 통해 우수한 전통주 소믈리에를 선발한다. 우승을 차지한 문 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이 많아졌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통주 면허는 1400여 개에 달한다. 2021년과 비교해 10%가 늘었고 탁주와 청주, 증류주 면허가 크게 증가했다. 새로운 감각으로 전통주를 만드는 곳이 많아지면서 전통주의 종류와 맛도 다양해지

문희영 씨가 말하는 전통주란?

전통주 하면 막걸리를 먼저 떠올리지만 전통주도 다른 외국 술만큼 종류도 맛도 다양하다. 전통주는 크게 탁주와 약·청주, 증류주로 나뉜다. 전통주를 만들 땐 먼저 쌀이나 밀, 보리 등의 원료에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술덧(발효액)을 만든다. 다 익은 술덧을 어떻게 거르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술덧에 용수(술이나 장 등을 거를 때 쓰는 등골고 긴 통)를 박아두면 맑은 술이 고이는데 이 맑은 술을 떠낸 게 청주다. 청주를 떠내고 남은 지게미를 거른 것이 탁주다. 색이 탁하다고 해서 탁주, 막 거른 술이라고 해서 막걸리라고도 한다. 청주를 술 고리에 담고 불을 때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액체를 받으면 증류주가 된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주세정책에 따라 일본식으로 만든 맑은 술을 청주라고 부르게 되면서 우리 전통방식으로 만든 청주는 약주라고 부르고 있다.

탁주는 도수가 낮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 최근에는 다양한 부재료를 활용해 색다른 맛을 낸다. 약주는 도수가 15~16도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쌀의 구수함, 농축된 풍미가 특징이다. 감칠맛이 있어서 한식과 잘 어울린다. 증류주는 원료 고유의 구수한 풍미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이밖에 국산 포도, 딸기, 키위 등 다양한 과일로 만든 과실주도 있다.



2023년 9월 열린 '제13회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 우승자인 문희영 씨. 막걸리 마니아로 시작해 전통주 소믈리에이자 전통주 상품기획자(MD)로 일하며 다양한 전통주를 소개하고 매력을 알리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고 있는 것 같다. 2023년 11월에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도 신생 양조장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전통주가 나올 때마다 맛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전통주를 소개하려면 끊임없이 맛보고 공부해야겠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술, 다양한 술을 확인하고 맛보려고 한다. 요즘에는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전통주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전통주를 전문 취급하는 بوت숍, 주점도 많아져서 접근이 쉽다.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에도 직접 찾아가 술을 만드는 과정이나 양조사의 의도를 알아보고 경험과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됐나?

성인이 되고 처음 마신 술이 막걸리였다. 과일이 들어간 막걸리를 마셨는데 술이 쓰지 않고 맛있

었다. 도수도 낮고 달콤한 데다 값도 싸서 점점 막걸리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막걸리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학교에 막걸리 마니아로 소문이 났다. 교수님 제의로 아예 전통주 스테디를 시작해 전통주 교육기관을 찾아다녔다. 지금은 푸드 스타트업 '쿠켓'에서 전통주 상품기획자(MD)로 일하고 있다.

전통주 소믈리에가 됐다.

전통주를 공부하다 보니 재밌어서 이왕이면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전문성도 키우고 자격증을 따서 활용해보고도 싶었다. 전통주 양조 과정부터 전통주 역사, 테이스팅 등을 배우고 양조장에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었다.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전통주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더 성장하

전통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 원, 2021년 941억 원, 2022년 1629억 원으로 급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의 인기는 2024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년 7월 정부는 전통주 산업의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전통주 산업발전 계획에는 전통주 산업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전통주류 매출액을 2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900억 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자금을 조성해 단계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K-술' 문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통주류 수출액을 5000만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프리미엄 전통주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유망 품목에 전통주를 추가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우리 술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해 '막걸리 빛기'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또한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양조장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리술 품평회' 수상주 제조장을 강소 양조장으로 키운다. 2024년부터 조성되는 'K-미식벨트'와 연계한 전통주 갤러리 지역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도 진행한다. 특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전통주 산업 통계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전통주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정과 규제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고급 전통주 육성을 위해 과세체계를 기존 증가세에서 증량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



2023년 1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스스

고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대회라고 생각했다. 전통주 소믈리에가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는 전통주의 역사와 이론, 서비스 등을 테스트한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선 맛과 향만으로 어떤 전통주인지 맞춰야 했다. 전통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난도가 높았다. 우승을 하면서 막연하던 꿈이 선명해졌다. 한국인의 밥상에 전통주가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외국에선 와인이 항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엔 사람들과 소통하며 전통주를 알리는 시음회나 원데이클래스를 열고 있다.

전통주 소믈리에가 많나?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업계에서 일하면서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다. 개그맨 정준하 씨가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가 됐지만 여전히 와인 소믈리에에 비해 전통주 소믈리에를 생소해 한다. 막걸리를 마시는데 왜 소믈리에가 필요해? 와인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냐? 그런 자격증이 있느냐며 설명해보라는 사람도 있었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통주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럴수록 전통주를 자세히 소개하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전통주의 매력을 꼽으라면?

전통주는 로컬푸드다. 지역에 따라 재료가 다르고 술의 역사가 다르다. 지역마다 날씨와 물, 미생물이 달라 술이 익는 과정이 다르고 맛이 다르다. 술 한 병에 그 지역의 특성이 다 담긴다. 술을 만드는 사람의 철학도 담겨 있다. 술에 담긴 의도와 신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도 전통주의 매력이다. 그림도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설명절, 전통주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차례상에는 주로 맑은 술인 약주를 쓴다. 약주

문화영 소믈리에가 전하는 전통주 더 맛있게 즐기는 법

1 막걸리는 무조건 시원하게 마시는 게 맛있다. 잔은 크고 깊은 게 좋다. 공기와 만나 막걸리 향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2 약주는 잔에 따른 뒤 바로 마시지 말고 시간을 두고 공기와 접촉하게 둔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온도가 바뀌면서 피어 오르는 향이 달라진다.

3 증류주는 작고 깊은 잔에 따라 마시는 게 좋다. 향이 모여 술의 풍미를 더해준다. 증류주에 물을 약간 섞으면 향이 더 잘 올라온다. 맛도 부드러워진다. 증류주는 도수 25도 이하는 시원하게, 40도 이상은 실온에 보관하길 권한다.



는 냉장고에 오래 넣어둘수록 감칠맛이 더해진다. 약주는 감칠맛 나는 조개류와 조합이 좋다. 기름지고 묵직한 차례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소맥(소주+맥주)처럼 다른 술을 섞거나 탄산수를 넣어 하이볼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추천한다. 같은 원료를 사용한 술을 섞어도 좋다. 사과 막걸리에 사과 증류주, 탄산수를 넣으면 최고의 칵테일이 된다.

최근 전통주를 즐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다.

MZ세대가 전통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힙(Hip)하다. 다른 하나는 희소성 때문이다. 젊은 양조자가 많아지면서 전통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지 않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 맥주 발효 방식으로 만든 막걸리, 와인으로 만든 막걸리, 위스키처럼 만든 소주가 나오는 이유다. 민트초코나 바질 등 특이한 부재료를 사용한 술도 많다. 뻥한 술이 아니라 신선하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가 전통주에 빠진 이유다. 더욱이 누리소통망(SNS)에 인증하기 좋은 감각적인 디자인도 한 몫 했다. 최근에는 한정된 양으로 예약 판매하는 전통주가 생겨나면서 희소성이 커지고 MZ세대의 수집 욕구를 자극한다.

전통주 시장이 더 활성화되려면 정부나 업계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술 경쟁력을 키우려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술 분류부터 주재료 사용량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주는 대부분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자들도 늘 일정한 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술 품질인증제’를 활성화해 술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한다면 전통주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전통주를 찾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전통주의 세계화 가능성은?

해외에선 막걸리의 인지도가 높다. 현지에서 막걸리를 접한 뒤 한국에 와서 막걸리를 즐기는 외국인이 많다. 해외를 공략하는 기업도 늘고 있고 해외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생막걸리는 효모가 살아있는 생주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변질 위험이 높아 수출이 어렵다. 그래서 해외 수출은 살균막걸리 비중이 높고 이를 위한 시설투자과 기술이 필요하다.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선 해외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살균기술 개발과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해외에 수출하는 살균막걸리 대부분이 과일 막걸리인데 도수, 당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주를 줘 막걸리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강정미 기자



일본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눈 오는 날 '화랑대철도공원'의 히로덴 전차. 소유주인 히로시마전철(주)로부터 무상양도받아 화랑대철도공원에 전시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화랑대철도공원(노원불빛정원)

‘시간’이 멈춘 간이역 동화 속으로 출발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춘선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 문을 닫았다. 1930년 7월 20일생으로 70여 년 동안 사람들을 맞고 보내던 역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폐선이 된 철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우두커니 자리를 지켜오던 이 간이역이 2017년 ‘화랑대철도공원(노원불빛정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울 동북부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한다. 텅 비어 있던 철로엔 이색 기차들이 자리하고 매년 역을 중심으로 음악회와 맥주축제가 펼쳐진다.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 된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얘기다.

특별한 기차들의 종착역

“할아버지! 여기는 왜 기차들이 다 가만히 서 있어요?”
 “응, 여긴 오랫동안 열심히 달렸던 ‘할아버지 기차’들이 쉬는 곳이거든.”
 “아하! 그럼 할아버지 기차가 되면 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아주 특별한 할아버지 기차들만 오는 곳

화랑대철도공원(노원불빛정원)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29-4
 문의 (02)2116-0668

이란다. 일본에서 온 기차도 있고 체코에서 온 기차도 있대. 한마디로 할아버지 기차박물관인 거지. 가만 보자, 할아버지랑 나이가 똑같은 기차가 어디 있다던데?”

1월 19일 해 질 녘 화랑대철도공원. 탐방객 신기수 씨와 여섯 살 외손녀 이유주 양이 두 손을 꼭 잡고 옛 경춘선 폐철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치 한 편의 그림 동화책을 펼친 것만 같다. “할아버지 기차들이 쉬는 곳”이라는 표현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행여 들킬까 고개를 돌렸더니 영화 ‘철도원’ 속에서나 본 것만 같은 오래된 기차와 1970~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가 현실 속으로 튀어나온 듯한 증기기관차가 눈앞에 떡하니 서 있다.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구 능동어린이대공원)에 있던 1950년대 ‘미카 증기기관차’다. 물론 ‘은하철도999’의 증기기관차와는 외관만 닮았을 뿐 기종은 다르다. 미카 증기기관차는 화물용으로 도입돼 우리나라에서 1919년부터 운행돼오다 1967년 디젤기관차가 등장하면서 퇴역했다.

2017년 12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건너온 히로덴 전차도 있다. 히로덴 전차는 은퇴 후 2017년 말 폐차될 예정이었으나 노원구가 이 전차의 소유주인 히로시마전철(주)에 전시의사를 전달하면서 무상양도 조건으로 화랑대철도공원에서 말년을 보내게 됐다. 아날로그 감성의 히로덴 전차는 사진 동호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이곳만의 감성이 좋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다”는 사진 동호인 조성규 씨는 “눈 오는 날 철길에 설경까지 더해지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감

성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기차만 전시해둔 게 아니라 각 기차의 내부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반쯤 빨간색을 두른 체코 노면 전차는 화랑대철도공원을 이국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일등 공신이다. 내부는 ‘트램 도서관’으로 꾸며져 누구든 기차에 올라 책을 읽을 수 있다. 공원 입구 쪽에는 귀여운 꼬마열차, 협궤열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노면 전차 모형 등이 옛 경춘선 폐철로를 따라 이어진다.

추억이 전시된 ‘화랑대역사관’

화랑대철도공원(노원불빛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 중 ‘지역 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공원은 등록문화재인 화랑대역 일대 4만 462㎡ 부지를 2017년 철도 테마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7월 20일 ‘태릉역’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1958년 ‘화랑대역’으로 개명했다. 이후 화물 취급 중지와 개시를 반복하다 2006년 화랑대역사(驛舍)가 일제강점기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며 보존돼왔다. 그러다 2010년 12월 여객 취급 중지 및 간이역으로 격하되고 경춘선 복선 전철화로 역 기능이 쇠퇴하면서 폐역 수순을 밟았다.

지금은 폐철로가 됐지만 경춘선 철로가 놓인 사연은 특별하다. 조선총독부가 강원도청을 춘천에서 철원으로 옮기려 하자 도청을 지키기 위해 춘천의 부자들이 사비를 털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철도였다. 화랑대역은 서울

(왼쪽) 경춘선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화랑대역사는 밤이면 미디어아트로 수놓아진다. (오른쪽) 등록문화재인 화랑대역사는 ‘화랑대역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성북역(현 광운대역)에서 춘천역까지 이어진 경춘선 노선 중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으로 자리를 지켜오다 철도공원으로 재탄생했다. 퇴역 후 쓸모를 제대로 찾은 셈이다.

인적 드문 날이 더 많았던 서울 변두리 역사는 공원 조성 과 함께 '화랑대역사관'으로 탈바꿈했다. 비대칭 삼각형 박공지붕 형태의 아담한 건물은 최대한 원형을 지키면서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했다. 옛 대합실에 들어서면 경춘선과 화랑대역의 역사(歷史)가 한눈에 펼쳐진다. 화랑대역 연대기부터 마지막 역장 이야기와 기록물, 화랑대역 관련 기증품 등을 구경하다보면 시간을 되돌린 듯하다. 장년층 이상이라면 기차표 등 전시품 하나하나가 추억을 불러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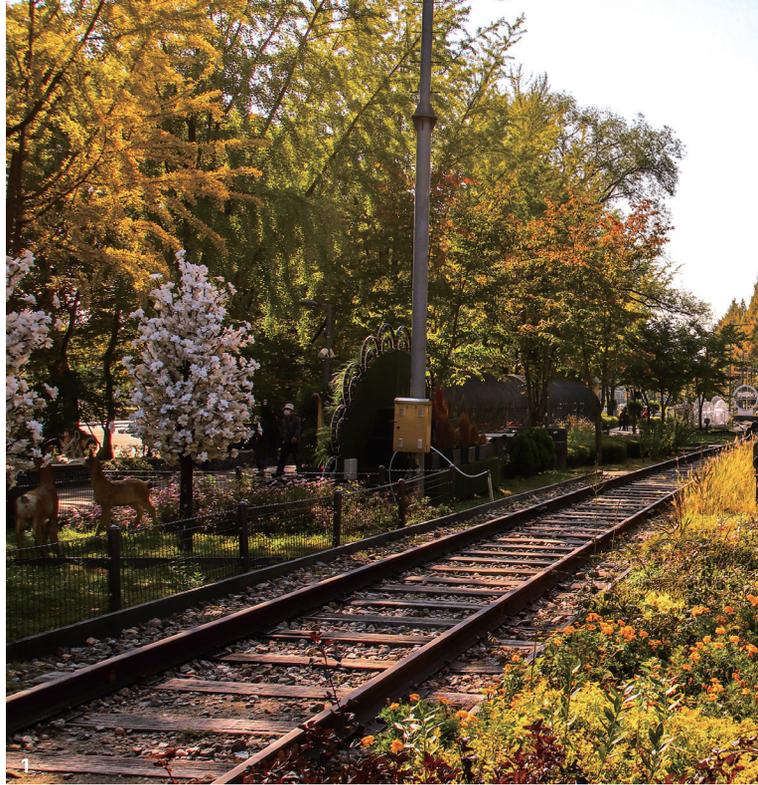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은 열차 진출입을 신호기로 제어하는 '폐색기 체험'이다. 아이들은 진짜 역무원이 된 듯 색깔 버튼을 조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실제 기차 좌석처럼 꾸민 전시관 안쪽의 영상 관람석은 중장년층이 더 좋아한다. 자리에 앉으면 영상과 함께 기차 여행이 시작된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이다.

해 진 뒤엔 노원불빛정원으로 변신

화랑대철도공원은 해가 누엣누엣 질쫂 '노원불빛정원'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마치 마법처럼 과거를 품은 화랑대역사 전시관 외벽이 미디어아트쇼가 펼쳐지는 스크린으로 변신하는 시간이다. 공원 바닥은 형형색색의 조명쇼가 펼쳐지는 무대가 된다.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 미디어 영상을 상영하는 미디어 트레인 등 야간 경관조형물들이 400여m 구간을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인다.

노원불빛정원을 제대로 관람하려면 공원 입구 '비밀의 화원'부터 시작하자. 음악과 함께 색색으로 변하는 불빛 터널을 지나면 음악 정원, 불빛 화원, 하늘빛 정원 등이 이어진다. 경춘선 철길 건너편엔 숲속동물나라, 반딧불정원 등이 있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3차원(3D) 기차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천국. 화랑대역사 전시관 부근 높이 7m, 너비 10m의 대형 꽃나무 조형물 '아바타 트리'도 볼거리다. 40개의 조명 장치가 더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노원



화랑대철도공원 100배 즐기기

노원수제맥주축제

서울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노원불빛정원)에선 계절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린다. 노원수제맥주축제(NBF·Nowon Beer Festival)는 국내 수제맥주 브루어리(양조장) 1세대로 노원구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수제맥주 브랜드 '바네하임'과 노원을 대표하는 '노원수제맥주협동조합'을 비롯해 전국 유명 브루어리를 초청해 여는 지역 맥주축제다. 2023년 6월 2~3일에 열린 1회 축제 당시 18개 브루어리가 참여해 150종의 수제맥주를 선보였다. 여기에 노원구의 전통시장인 '공릉동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 상인회가 참여해 맥주에 어울릴 만한 먹거리를 판매했다. 다양한 장르의 유명 뮤지션과 인근 대학의 동아리 공연 등이 더해져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2023년 5만여 명 이상 다녀간 노원수제맥주축제는 올해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옛 경춘선 폐철길은 힐링 산책로인 '경춘선숲길'이 됐다.
 2 일몰 30분 전부터 밤 10시까지 노원불빛정원으로 변신하는 화랑대철도공원.
 3 무궁화호 열차를 개조해 시간 박물관으로 꾸민 '타임뮤지엄'의 시계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불빛정원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일몰 30분 전부터 밤 10시까지 무료 관람이다.

시간의 소중함 깨닫는 타임뮤지엄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화랑대철도공원엔 이색 즐길거리가 기차처럼 줄줄이 이어진다. 철로 한가운데 묵직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궁화호 열차는 퇴역한 무궁화호 열차를 활용한 타임뮤지엄이다. 객실 6량은 시간여행을 주제로, 다시 인류, 예술, 올림픽, 나눔 등으로 꾸몄다.

열차표 모양의 입장권(성인 6000원·청소년 4000원·아동 2000원)을 끊으면 입장할 때 옛날 방식대로 편치로 표에 구멍을 뚫어준다. 시간의 탄생부터 아인슈타인의 시간, 예술로 승화시킨 중세의 시간, 현대 작가의 시간 등을 전

“ 화랑대철도공원은 해가 누엣누엣 질쫘

‘노원불빛정원’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마치 마법처럼 과거를 품은 화랑대역사 전시관 외벽이

미디어아트쇼가 펼쳐지는 스크린으로 변신하는 시간이다. ”

시품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전시한 시계만 95점에 이른다. 마지막 시간의 나눔관에서는 남은 인생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주는 ‘시간계산기’가 기다린다. 한정된 시간이 계산기에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순간 관람객들의 표정이 달라진다. 3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생사진관’도 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장마감은 오후 6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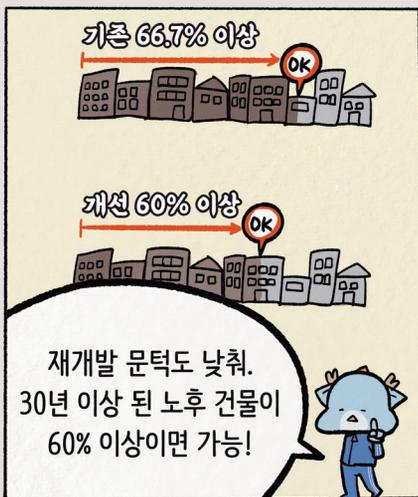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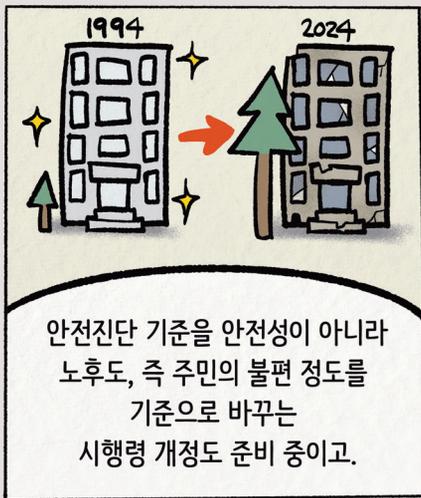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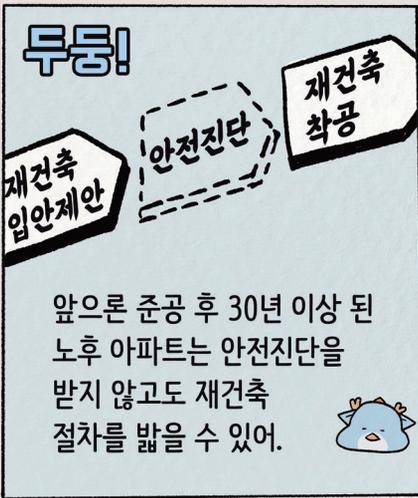
화랑대역사관 옆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도 지나칠 수 없다. 커피 등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면 미니 기차가 음료를 배달해준다. 미니 기차는 카페 창가를 두른 레일을 따라 칙칙푹푹 소리에 경적까지 울리며 음료를 싣고 온다. 카페 한쪽에서는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왕복선 켈럼비아호가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명절 당일엔 휴무이며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은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기차마을을 정교한 축소 모형으로 재현해놓았다. 4.4m 크기의 알프스 마터호른산 모형을 중심으로 융프라우와 몽블랑산 모형이 제법 실감나게 펼쳐진다. 그 사이를 17대의 모형기차가 쉬지 않고 달리는데 10분 간격으로 조명이 들어와 스위스 기차마을의 낮과 밤 풍경을 번갈아 감상할 수 있다.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장마감은 오후 6시) 운영한다. 관람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명절 당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밤 10시가 되면 화려한 불빛들은 사라지고 화랑대철도공원에 어둠이 내린다. 양팔을 벌리고 외출타기하듯 철로를 걸어오는 길, 문득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경춘선 열차에 올랐던 그때 그 시절, 청춘의 시간들이 등 뒤에서 배웅하는 듯했다. **K**

박근희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더 쉽고 더 빠르게



만성피로증후군

병이 없는데 극심한 피로

생활습관 바로잡기부터

“늘 피곤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43세 하경 씨는 1년 전부터 휴식을 취해도 없어지지 않는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게으르다”는 핀잔을 들을 때도 있어 답답하다며 병원에 찾아왔다.

하경 씨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환자가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온다. 피로감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라 병명 없이 피로감만 호소할 때 종종 피병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들을 면담해보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만성피로를 호소하면 우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빈혈, 간 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부전증, 암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세히 검사해봐야 한다. 아무런 병도 없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199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진단할 수 있다. 직업활동 또는 교육·사회·개인활동 및 기능이 감소하고 기억력·집중력이 줄어들 때, 인후통이 있거나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에 부종이 생길 때, 통증·근육통·다발성 관절통·두통 등이 있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은 증상, 운동 후 24시간 이상 심한 피로감 중 4개 이상이 동시에 발생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이 길어질수록 호르몬 균형은 무너지고 면역기능이 저하돼 치료가 어려워진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흔히 무력감과 우울감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 처방하에 항우울제나 부신피질호르몬 등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게 약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에 있다. 나는 하경 씨에게 아래와 같은 만성피로 관리법을 소개했다.

첫째, 장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줘 피로감을 유발하는 튀김, 인공조미료, 식품첨가제, 과다한 카페인 음료, 빵·떡·면·아이스크림처럼 갑자기 혈당을 높이는 ‘혈당 스파이크’ 음식들을 피하자.

둘째, 비타민B·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면역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아연, 셀레늄, 각종 미네랄, 섬유소, 유산균, 오메가3지방산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자.

셋째, 힘이 없다고 집에만 누워 있지 말고 본인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자.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가까운 숲 산책을 추천한다.

넷째, 교란된 면역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루 7시간 이상 양질의 수면은 필수다. 수면 부족은 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



서정아

병을 고치는 데는 열매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가정의학과 의사. 레바논에서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대구에서 ‘미클린의원’을 운영 중이다. 책 ‘어쩌다 미혼, 이제부터 체력 싸움이다’를 썼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봄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린다는 전남 광양시 다압면 소학정 매화나무입니다. 벌써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나무를 보니 봄이 오는 게 느껴지네요. 기나긴 겨울이 오히려 봄을 잉태하는 때를 생각해보면 지치고 힘겨운 오늘이 희망찬 내일을 위한 관문일 거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가락한 꽃망울이 'K-공감' 독자의 마음을 밝히는 꽃등(燧)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희경 전남 광양시

공감
칭찬
합니다!



740호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도 도로에 칠해진 초록색·분홍색 선을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노면 색깔 유도선이 생기면서 갈림길에서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분기점 사고율이 줄었다니 다행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혁신적 변화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정희원 서울 서초구



739호 이사를 준비하면서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실린 기사를 꼼꼼히 읽게 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공공분양 주택 '뉴:홈'은 희소식입니다. 튼튼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이 꼭 실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연주 서울 도봉구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카카오 gonggam.korea.kr

유튜브 youtube.com/weeklygonggam

블로그 blog.naver.com/mcst_pr

페이스북 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21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한파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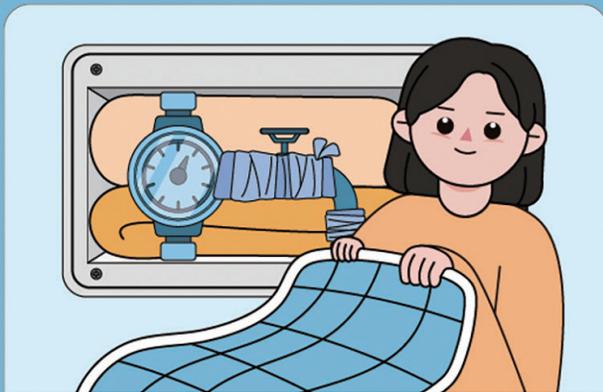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도로살얼음에 대비,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수도계량기함을 헌 옷, 보온팩 등으로
채우고 밀봉해 동파 예방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동상에 걸리면 40°C의 따뜻한 물에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겨울철 질식 사고예방을 위해
텐트 등 내부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2 0 2 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50만 근로자와 5만 개 기업이 선택한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경비 지원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기간 2.1(목) ~ 15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 시까지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 vacation.visitkorea.or.kr 접속 → 기업 단위 신청

신청문의 ☎ 1670-1330 ✉ vacation.benepia@sk.com

40만원 여행경비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사업방식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원 지원
- 여행적립포인트 사용 휴가삼(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여행



입장권
(레저/관광시설 등)



교통
(항공권/기차 등)



레저/캠핑용품

- 적립포인트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 ~ 12.20(금)까지(기한 변동 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
지금 신청하세요!